

월간 가든인 4월호

April 2015

Gardenin

특집
기사

꽃으로 아름다운 치유정원마을 - 독일 바트비리호펜



Gardenin Maintenance

Gardenin 4월 정원관리
정원사의 일기



Gardenin Plants

류제의 수선화이야기
정원 '색 보이네'
정원문화로 가는길



Gardenin Culture

서식지 별서정원
봄의 정원의 색상
정원 디자인 혁명
Cotswolds 정원마을



Gardenin Information

조경가든대학 "그리아카데미 6기" - 4월 개강 가든조야교육
영국의 정원디자인학교 소개 / 도서정보안내

ISSN 2288-1719



10,000원

9 772288 171000

잔디 잡초방제의 새로운 해결사!



syngenta

- 다양한 잡초에 적용가능한 광범위 제초제입니다.
- 락타이드 분해제 효과를 효과적으로 방제합니다.
- 침초 발생 초기 뿐만 아니라 발생 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 약효가 탁월하며, 약효 지속기간이 길습니다.
- 잔디(한국잔디)에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주요대상작물 : 한국잔디

무료상담전화: 080-900-1114 | 상담전화 1588-3889

신젠타 코리아(주)
www.syngenta.co.kr

© 신젠타에 표기내용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 표기내용 표시사항 이외의 사항은 사정하사 마십시오. © 어떤이름이 붙는 곳에는 농약특허나 상표권, 마크로. © 안전사용기준을 잘 지켜 무수명신물을 얻으십시오.



CONTENTS

Gardenin Maintenance

- 4 Gardenin 4월 정원관리
봄의 시작 구근의 이야기와 씨뿌리기, 잔디, 정원관리
- 10 정원의 일기 / 김사용
봄의 절기가 시작되는 청명과 곡우, 정원과 텃밭정원의 준비과정 소개

Gardenin Plants

- 16 류제의 수선화이야기
봄의 전령사 수선화의 모든 것을 설명하며 관리법과 번식 정보
- 18 정원 '속' 보이네
정원의 꽃들은 '속' Genus 의 근본만 알아도 식재의 효율성과 식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정원의 혼합 식재시 더 아름답고 건강한 정원의 정보코너
- 22 Special Issue / 정원식물(초화류) 따라잡기
정원식물(초화류)의 분류 및 조성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가든인턴으로 가정에서 씨앗으로 재배할 수 있는 다년생, 일년생 초화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 32 정원문화로 가는길
일반화 되어 가고 있는 텃밭과 옥상정원을 이제는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래의 목적대로 유지, 관리될 수 있다.
- 34 봄이 왔어요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따뜻한 봄안에 머물던 식물들이 이제는 부화되어 새로운 꽃생명이 태어난다. 꽃과 함께 봄여행을 떠나보자.
- 38 봄의 들꽃 깽깽이풀
한국의 화귀종 들꽃으로 보호종의 봄의 만남.
- 40 이명호의 야생화
독성이 강한 예쁜꽃 '원호초' 종류의 비교 관찰하기

Gardenin Culture

- 44 서석지 / 김홍렬의 한국전통 정원이야기
한국정원의 3대 별서정원에서 한국식 중세정원의 모습과 정원의 식재알아보기
- 47 봄의 정원의 색상 / 오도
전문색채의 정원디자인을 파헤치다
- 52 특집 - 꽃으로 아름다운 치유마을 / 독일의 바트비리호펜
정원문화가 발달한 독일의 치유정원마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 55 무엇이 정원을 재미있게 만들까? / 최지현가드너
- 58 'SBS 방송' 하이드지킬, 나의 정원 / 가든디자이너 김동숙
정원사의 역할은 TV set 속에서도 진화하고 드라마와 융합을 이루다.
- 62 뉴욕속 정원문화 옛보기 II.
뉴욕에서 중류가정의 정원방문기를 통하여 보는 미국의 정원문화
- 66 정원 디자인 혁명
- 68 정원로의 여행 / 가든디자이너 서수현
- 71 나무의자의 재할용 가드닝 / 우정하
- 72 봄의 찬가 - 천리포수목원 / 남수현차장
- 76 정원의 식물을 섬세히 그려가는 교육코스 정보

Gardenin Information

- 78 영국의 Cotswolds 마을의 정원 방문길 / 해외정원방문소개
세계최고의 정원마을, 자연속의 자연의 마을
- 80 영국의 정원디자인 학교 소개
- 81 도서정보

Gardenin
Gardenin 월간 4월호

Gardenin
정원사의

4월 정원관리

구근 식물의 환희를 만나다



이른 봄 구근식물 수선화 숲의 전경

나르키소스와 에코의 이야기

아름다운 청년 나르키소스는 에코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님프에 대해서도 사랑을 거절했다. 나르키소스로부터 사랑을 거절당한 한 님프는 그가 사랑이 무엇인지 또 애정의 보답을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복수의 여신은 그 청을 승낙했다. 어느 날, 나르키소스는 사냥에 지치고 갈증을 풀기 위해 샘까지 왔다. 물을 마시기 위해 몸을 굽힌 물속에서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는 그것을 이 샘에 살고 있는 물의 요정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빛나는 두 눈, 디오니소스나 아폴론의 머리카락 같이 곱슬곱슬 한 머리카락, 둥그스름한 볼, 상아 같은 목, 갈라진 입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빛나는 건강하고 단련된 모습을 정신없이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는 그 모습에 반해 키스하려고 입술을 댔다. 그러나 그것은 달아났고 잠시 후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나르키소스는 그곳을 떠날 수 없었고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고 언제까지나 샘 곁에서 서성이며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그것은 대답해 주지 않았다. 그는 날로 초췌해졌고 아름다운 점은 점점 사라졌다. 그는 혼자서 가슴을 태우다가 죽었다. 그리고 그는 저승의 강을 건널 때도 배 위에서 몸을 굽혀 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 했다.

님프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나무더미를 준비하고 화장하려고 하였으나 시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대신 속은 자줏빛이고 흰 잎으로 둘러싸인 꽃 한 송이를 찾아냈는데, 이후 그 꽃은 Narcissus 나르키소스(수선화)라 불리어졌다.

(그리스의 신화 중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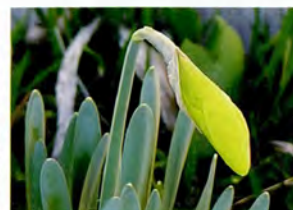
(물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는 나르키소스)



Narcissus flower



제주도 한림공원의 봄 수선화 축제장



Narcissus 나르키소스를 바라보며 수선화에 이름이 만들어진 그리스신화의 이야기는 봄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한번은 신화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수선화를 기억하여 주었으면 한다. 수선화와 꽃나무는 확실히 봄의 시작을 보여주며, 무심히 잔디를 바라다 보면서 봄비를 마주하기도 하고 간혹 화창한 날씨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집안에 뿌려둔 씨앗의 발아를 경험 할 수 있으며, 밖에 씨앗을 뿌리며 분주하게 기분 좋은 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수선화씨앗

정원사의 정원관리 업무리스트

No.	리스트	봄		
		3	4	5
01	관목 & 덩굴정리			
02	가지치기/ 전정작업			
03	퇴비주기			
04	망뒤집기			
05	춘·추식구근 심고 나누기			
06	농사짓기 (배추·고추·양파·자박배)			
07	화단관리			
08	원예 업무			
09	정원 도구 수리·유지·보수			
10	접붙이기			
11	조경 경관 디자인			
12	춘식·추식 씨앗 파종			
13	동절기 정원 관리준비			
14	물 배기(잡초제거)			
15	병충해 관리			
16	식물명 표찰 작업			
17	식재 심기 작업(춘추식)			
18	잔디작업준비(뜻장)			
19	토양 분석 및 관리			
20	나무 버팀대 설치 및 점검			
21	관수 공급			
22	충과 관리 감독 (정원관리파트별)			
23	작업전 후 사진정리			
	파종 시기 리스트 작업			



이달의 정원 관리 작업 리스트

1. 잡초제거를 합니다.
2. 과수의 꽃을 추위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3. 막 뿌려 지라는 장미 덩굴을 묶어 줍니다.
4. 내한성 일년생 화초와 허브 씨앗을 심습니다.
5. 감귤류 나무에 영양분을 줍니다.
6. 분재와 화초에 물을 더 줍니다.
7. 관목과 장미에 영양분을 줍니다.
8. 잔디 씨를 뿌리거나 새 잔디를 깎습니다.
9. 무화과의 가지치기를 합니다.
10. 대나무와 수련의 뿌리 나누기를 합니다.

정원가꾸기 업무과정



꽃



우리꽃연구소의 고급종자100선(고급초화류 문의 가든조아 031-634-7990)



온실에서 파종 6주후 발아하여 성장하는 모습

제라늄(*Geranium*)과 양귀비(*Oriental poppies*)같은 다년생 허브를 심을 수 있습니다. 강하고 파란색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잘 정리된 흙에 심어야 합니다. 연속 개화형 꺾꽂이 꽃 준비를 위한 계획을 하며, 참제비 고갈(*Delphinium*), 덩굴식물(*Sweetpea* 스위트피)등의 일년생 화초를 가꾸는 것이 유용하며 정원의 형태(Form)에 향과 색을 주는 식물로 보기에도 좋을 것 입니다. 이번 달 말에 온화한 지역에서 는 올 여름을 위한 결이형 화분에 식물을 심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제라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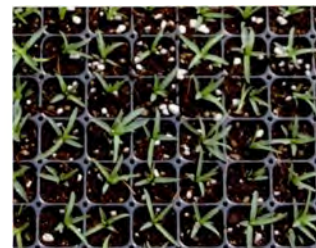


3색용 크로버는 지피 식물로도 이용하지만, 실내에서 결이형 화분으로 봄을 일찍 맞이할 수 있습니다.



씨뿌리기와 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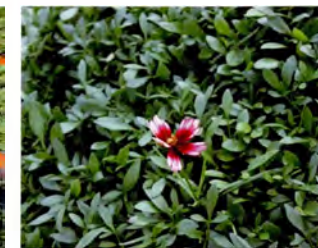
꽃씨준비는 다양하게 일년생, 내한성 일년생, 다년생, 덩굴식물등 씨앗을 뿌려 준비하거나, 화초를 화분이나 화단에 심어 정원에 화려함을 더해 주며 온화한 지역의 부드러운 흙에서는 야외에 직접 심어도 됩니다. 구역화된 모판에 선정된 종자와 파종시 날짜와 식물의 이름을 모판에 표식을 하는 것도 좋은 생각 입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낮과 밤의 온도가 적당히 따뜻해 주면 밖으로 옮겨 놓습니다. 만약 2월이나 3월에 미리 파종판에 어린 내한성 식물을 심었다면 지금은 바깥에 옮겨 심기가 좋을 때 입니다.



삼수한 후 사진(코레우리시리즈 Coreopsis)



삼수 후 2개월 성장 모습 (코레우리시리즈 Coreopsis)



개화시작의 삼수성장 (코레우리시리즈 Coreopsis)

삼수와 가지치기 그리고 뿌리나누기

다년생 식물의 윗부분에 새로 난 싹을 날카로운 칼로 8~10cm 정도로 잘라서 삼수 모종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뿌리 부분을 잘라서 삼수를 사용하면 빠르게 기반이 잡히게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줄기는 뿌리와 같이 자르면 안되고 루팅파우더 호르몬을 묻혀서 꽂아야 합니다. 무른나무도 이와 같이 삼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소한 곳에서 자라거나 개화량이 적고 고유의 모양을 잃은 다년생 초본의 무더기의 뿌리 나누기를 해주어서 증식을 시도 할 수 도 있습니다. 대나무와 구근 또는 근경의 무더기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뿌리 나누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식물이 말라 죽을 수 있으므로 화분에 수분이 충분한지를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화분이나 통에 신선한 퇴비를 깔아주어야 되며, 여유 공간이 없으면 5cm 정도 흙을 파내고 새로운 퇴비와 흙을 덮어 주면 됩니다.

해충과 질병 검사

백합(*Lilies*), 참제비고갈(*Delphinium*), 비비추(*Hosta*) 등의 새싹을 지렁이와 달팽이로부터 계속해서 보호해줘야 합니다. 유충에 의한 뿌리의 훼손은 화초가 시들해 지면 알게 되며, 뿌리가 심하게 훼손됨을 관찰 하거나 유충이 보이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물리적인 화학적 방법으로 유충을 제거 할 수 있으며, 어린 식물은 심한 훼손에서 회복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진딧물은 온화한 환경에서 증식이 아주 빠르게 진행 되므로 보이는 즉시 잡아주어야 문제를 줄일 수 있으며 특히 덩굴식물 Sweetpea 스위트피는 바이러스가 쉽게 옮겨지기 때문에 보호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겨울 팬지에 곰팡이나 검은 반점이 생겼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됩니다.

Gardenin Tip 봄에 꽃이 피는 고산식물에게 모래와 자갈을 깔아주어서 목 위가 썩지 않고 잘 보일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수목과 관목

씨뿌리기와 심기

추운 북쪽 지역에서 이달 초에는 상록수나 관목을 옮겨 심을 수 있으며, 흙의 배수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추위에 의한 위험이 없을 시 지금 옮겨 심는 것이 가장 활발히 성장 할 수 있는 시기 입니다. 따뜻한 지역에서는 가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건조한 날씨에서는 뿌리가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 입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화분에 낙엽성 울타리 식물과 관목을 심을 수 있으며, 기동과 토끼 보호대를 나무를 심은 곳에 위치시켜서 뿌리와 나무껍질의 훼손을 방지 합니다.

syngenta 신젠타 코리아(주)
www.syngenta.co.kr

스티제라 영양제

봄의 개화 활착 & 성장
균형잡힌 식물 영양분
경엽처리, 관주처리 가능

정원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영양분.
봄의 식물에게 필수영양제!



성분

스티제라는 동물성 클라겐을 가수분해 과정을 통해 생성한, 유리아미노산과 크고 작은 펩타이드로 구성된 유기질 복합제이다.

(유리아미노산, 아미노산, 펩타이드, 유기 질소분, 염노아태 질소, 질소, 유기탄소, 화분, 수분)

기능

저온, 물부족 또는 과염류에 의한 스트레스부터 안정화 저항 조직의 생성으로 세포벽 강화, 회복수정을 향상. 뿌리, 줄기, 잎 그리고 꽃의 성장 촉진. 질소를 보관하는 천연 저수지와 같은 역할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을 유도

장점

작물에 쉽게 흡수되는 영양소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적은 에너지를 소모
아미노산을 공급해 줌으로 염록소의 합성이 용이
영양생장을 촉진, 발근 촉진시키는 옥시신을 생성
강력하고 조화롭게 뿌리와 줄기, 잎을 발달

잔디

잔디가 올라오기 전 잔디를 깎아 주며, 일년 내내 같은 높이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잔디가 너무 조밀하게 있는 곳에 배수가 잘 되도록 하며 4월 중순이나 5월초에 잔디씨앗을 죽은 잔디 위에 뿌려 줍니다. 땅이 너무 축축하거나 저온이면 발아가 잘 안되기 때문에 날씨가 좋아지는 시기를 기다려서 시행해야 됩니다. 땅을 미리 고르게 다져 놓는 것도 좋은 준비 방법입니다. 질소가 많이 첨가된 비료를 주며 좋고 강한 성장을 유도 할 것입니다. 이끼가 문제시 된다면, 비료와 이끼 제거제를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잔디용 잡초제거제를 4월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갈퀴로 부드럽게 오랜 식물 쓰레기를 제거 해주며, 이끼제거제를 뿌린 후 죽은 이끼도 같이 제거를 합니다.



봄이면 힘든 잡초제거 잔디



깊게 뿌려박힌 잔디의 잡초는 제초제 이용이 필수



제초제후 안정된 잔디



제초제 후의 묘소



악제처리 45일 후



잔디제거제 뿌린후 잡초모습 (주)신젠타 모뉴먼트의 실행사진

모뉴먼트

4월 한식일을 맞아 조상묘소에 잡초제거제로
(주)코리아신젠타에서 작은 소포장의
모뉴먼트를 고객을 위해 준비하였다.

특징과 이점

- 다양한 잡초에 적용 가능한 광범위 제초제이다.
- 띠 등 문제 잡초를 효과적으로 방제한다
- 잡초 발생후 분만이나 발아 전 사용시 예방 효과가 우수한 제품이다. (묘소등지)
- 적은 소량으로도 우수한 약효를 발휘한다.
- 약효 지속시간이 길어서 오랜 기간 지속력이 있다.
- 한국잔디에 사용해도 잔디에 피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 방제 효과가 뛰어난 사진비교



syngenta 신젠타 코리아(주)

특히 발아전 한식기간을 맞아 성묘지와 잔디에 사전 뿌려주면
발아 예방효과가 우수하고 적은 소량으로도 우수한 효과와
긴 약효시간을 유지하여 추석이 되는
가을까지는 잡초와의 전쟁에서 해방되는 소식을 드릴 수 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업'

종자 종묘 대표기업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많지만, 같은 가격으로
물품, 기술, 노하우를 함께 판매하는 기업은
CZ 입니다.

종자	꽃묘	프러그	구근	조경용 수목
일반초화 종자 다년생초화 종자 야생화 종자 채소 종자 등	일반초화 꽃묘 다년생초화 꽃묘 야생화 꽃묘 등	일반초화 프러그 다년생초화 프러그 야생화 프러그 삼수 프러그 등	춘식구근 추식구근 등	연산홍 자산홍 남천 등



농업회사법인 (주)씨제트

대표전화 031-444-1488
팩스 031-444-147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67 3층
홈페이지 www.czcorp.co.kr / 쇼핑몰 www.czmart.co.kr

정원사의 일기

(Gardener's Diary)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3월(음력)령 [농가월령가]

조선 초 광해군 때의 고상인(高尚顔) 또는 조서 후기 현종때의 정학유(丁學游)

삼월은 늦봄이라 청명곡우 절기로나
꽃사이 빤바비는 충분히 날아도네
농부의 힐드느일 가래질 첫째로다
물고름 깊이치고 두령밭아 물올막고
곡식중에 논농사는 잡사리 못하리라
보리밭 매어놓고 모자리 는 갈아엎소
무우배추 아욱상추 고추가지 파마늘을
외밭은 파로하여 거름을 많이하소
잡심을 청소하고 도구들을 준비하니
산고두과 울릉도며 문배참배 늑금사리¹⁾
늑바람속 집안에서 불빛을 홀로보면
고추장 두부장도 맛맛으로 갖취하소
털어진꽃 활고얹아 빗은술로 즐김적에

/ 봄날이 따뜻하여 만물이 화창하니
/ 미물도 때를 만나 즐기니 보기좋다
/ 점심밥 잘 갖추어 때맞추어 배불리소
/ 한켠에 모란하고 논흙을 풀어주며
/ 내가밭엔 흙살이요 산밭에는 콩이로다
/ 들농사 하는틈에 채마전도 가꾸세나
/ 새색이 분별하여 빈땅없이 심어놓고
/ 농가의 여름반찬 이밭에 또 있는가
/ 다라끼 감도마며 채광우리 대밭이라
/ 엽적피집 도마집에 행차집²⁾이 잘사나니
/ 과일밭일 아니로되 산속의 취미로다
/ 앞산에 비경으로 살진나를 캐오리라
/ 산재를 준비한것 흙은술로 이쁘니다

/ 온갖꽃 활짝피고³⁾ 새소리 각색이라
/ 한식날 묘지근처 뱀안나뉘 새이⁴⁾난다
/ 일군의 치자식솔 따라와 같이먹세
/ 날마다 두세번씩 부지런히 살펴보소
/ 들깨모 일찍북고 삼농사도 하오리라
/ 울밑에 호박이요 치마가에 박살으로
/ 개바들 베어다가 개바자 돌리만고⁵⁾
/ 뽕노을 살펴보니 누에날때 되었구나
/ 각별히 조심하여 벌새를 없이하소
/ 서울 절꽃매화 북은그루에 절음분여⁶⁾
/ 인간의 요긴한일 장담그는 일이로다
/ 삼주두를 고사리며 고비도라지 개나리⁷⁾를

/ 반갑다 쟁제비는 옛집을 찾아오고
/ 조상생각 슬픈느낌 술과일로 퍼오리라
/ 농촌의 후한풍속 곡식을 아끼소나
/ 약한박 새워낼제 어린이 보호하듯
/ 좋은씨 가리여서 그루를 엮바무소
/ 담근치에 동아심이 넣을밭질 올려보세
/ 닭과 개 방비하면 자연히 무성하리
/ 여와 부녀들이 누에농사 전심하소
/ 한식전후 산사일에 과일나뉘 절하나니⁸⁾
/ 농사를 끝난후에 학반에 옮겨 들여놓고
/ 소금을 미리밭아 법대로 담그리라
/ 절반은 엮어달고 나머지는 무쳐먹세

1) 원문: 백화(百花)는 단안(團圓)하고

2) 원문: 백안(白鵝)나무, 백안나무는 사사나무(Populus davidiana)이다. (원문: 사사나무 鵝(鵝)을 알하고, 백(白)은 이 나무의 줄기가 화색이기 때문에 붙은 듯하다. 사사라는 이름은 전바람집도 잎이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3) 원문: 갯바들 비어다가 개바자 돌리만고, 갯바들(Salix gracilistyla)의 가지로 벌레를 엮어 울타리를 만드는 데 쓰이는 물건.

4) 원문: 寒食前後 三四日에 寒木을 접하니, 한식전후 삼사일에 과일나무 접목하다. 요즘에는 기후온난화에 의해 기온이 많이 올라가 3월 중순에서 4월초에 접한다.

5) 원문: 단행나뉘(丹杏李) 늑금사리, 울릉도며 문배참배 늑금사리, 단행은 살구나무(Prunus armeniaca var.

ansu)이고 나행은 저두나무(Prunus salicina) 울릉도는 무엇일까? 지명이 아니라 복숭아(Prunus persica)일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노래하고 있고 그 뒤에 나오는 식물 또한 그러하다. 문배(Prunus seoulensis), 참배(Prunus ussuriensis var. macrosipes)는 먹을 수 있는 배이며 늑금사리(Malus pumila)

6) 원문: 엽적피집 도마집에 행차집, 엽적 피집 도마집 행차집 모두 접목의 방법으로 생각하여 피집은

7) 원문: 창다! 창능에는 그루에 접을부처, 창다이는 창다리를 말하고 창능에는 서울매화를 말하여 오래된 나무의

그루가기에 접목을

8) 원문: 삼주두를 고사리며 고비도라지 개나리, 삼주 두를 고사리 고비 도라지 개나리

무를 심는다. 곡우는 穀(곡식)과 雨(비)우)로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니 곡식 싹 틔우는 비다. 복숭아 꽃 방긋이 피고, 조팝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시기상으로는 입춘으로부터 여섯째, 음력으로는 3월의 절기이며 양력으로 4월 20~21일 태양의 황경(黃經)이 30도일 때이다. 청명과 입하(立夏) 사이에 있습니다. 이 때부터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된다. 곡우 때가 되면 봄비가 자주 내리고 백곡(百穀, 백가지 곡식)이 윤색해진다 하여 <곡우에 가물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는 말이 있다. 옛날 곡우 무렵이면 농가에서는 못자리를 하기 위해 벼씨를 담갔다.

말발도리(Deutzia uniflora)는 새가지에서 잎이 나오고 묵은 가지에서 흰 꽃이 핀다. 층층나무는 밝은 녹색의 잎이 형태를 갖추고 잎 가장자리로 열은 빨강색으로 테를 두른다. 비목(Lindera erythrocarpa)도 잎이 나서 형태를 갖추었고 잎을 비벼서 냄새를 맡아보면 독특한 향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철쭉(Rhododendron schlippenbachii)의 아름다움을 놓칠 수 없습니다. 신록의 잎과 분홍색 꽃이 같이 피는 철쭉이 화려하게 피어 있습니다. 층층나무, 비목나무, 철쭉의 잎은 모두 엷갈려 나지만 언뜻 보기에는 한자리에서 모여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묵본 식물들 아래로 녹색바탕에 연황색 바탕에 연녹색을 그물무늬 꽃이 피는 중국패모(Fritillaria thunbergii), 불염포라고 불리는 특이한

형태의 꽃을 피는 천남성(Arisaema sp.), 자흑색의 꽃이 피는 죽도리풀(Asarum sieboldii), 흰 꽃이 피는 줄방제비꽃(Viola acuminata), 연황색의 꽃이 피는 애기나리(Disporum smilacinum), 노란색 꽃이 피는 산괴불주머니(Corydalis speciosa) 등을 볼 수 있다.

키 큰나무(교목)



층층나무(Cornus controversa)



비목(Lindera erythrocarpa)



늑연수아래 무스카리 수선화 튜립삼은 사레 (Muscari sp., Narcissus cv., Tulipa cv.)

키 작은나무(관목)



철쭉(Rhododendron schlippenbachii)



국수나무(Stephanandra incisa)



매화말발도리(Deutzia uniflora)

초본식물



산괴불주머니(Corydalis speciosa)



애기나리(Disporum smilacinum)



줄방제비꽃(Viola acuminata)



천남성(Arisaema sp.)



죽도리풀(Asarum sieboldii)



중국패모(Fritillaria thunbergii)



김시용 저자

텃밭정원(Vegetable Garden)

4월이 되면 노지에 바로 뿌릴 수 있습니다. 물은 썩이 나는 온도가 낮은 상추는 3월부터도 가능합니다. 집 앞에 텃밭이 있거나 주말에 가는 텃밭이 있다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색깔 있는 끈(색깔이 없어도 됨), 말뚝2개(35cm정도), 삽괘이(선호미), 물뿌리개, 씨앗, 표찰, 연필이 필요합니다.

노지에 직파하기



직파1.
채소씨앗을 파종하기 위한 두둑이 준비가 되면, 두둑의 양 끝에 말뚝(막대기)을 박고, 끈을 이용해 줄을 띄운다.



직파2.
줄을 따라 삽괘이 등을 이용해 골을 탄다. 골의 깊이는 채소 씨앗의 크기를 보면서 결정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씨앗 크기의 2-3배 정도의 흙이 덮일 수 있도록 한다.



직파3.
골을 낸 곳에 물조리개를 이용해 물을 준다. 이것은 씨앗에서 썩이 등 때까지 충분한 수분이 유지되게 하기 위함이다. 파종 후 표면위에서부터 물을 주면, 씨앗이 있는 곳까지 스며들기 쉽지 않고, 열상을 하지 않으면 자연 건조해 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직파4.
노지에 직파할 경우는, 씨앗이 한꺼번에, 한곳에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우선 씨앗을 손에 덜고, 손을 약간 구부리면 손끝에 골이 생기게 된다. 씨앗을 들고 있는 손을 고랑에 대고, 다른 한 손으로 상상 두드리면 씨앗이 하나 둘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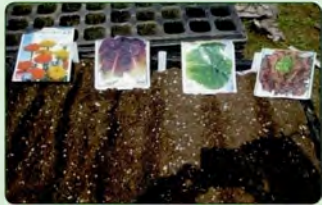


직파5.
종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작업하다 보면, 손이 적거나 떨어지면 씨앗이 손에 달라붙는 경우에는, 종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좋다.



직파6.
파종 후 손으로 흙을 덮어준다. 씨앗이 클 경우에는 농기구(레이크)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손으로 덮어 주며 굵은 흙덩어리들을 골라 주면 씨앗 발아에 도움이 된다.

삽삭상자에 여러 종류의 채소파종하기



삽1.
공간을 잘 활용하면, 삽삭상자 하나에 10평 내외의 채소 종류를 파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파종한 채소 씨앗을 고르고, 표찰에 이름표를 먼저 기록한 후에 꽃이 된다.



삽2.
파종 후 7~10일 내외가 되면 썩이 나다. 어린 모종은 잎은 물론이고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핀셋이나 나무 막대기를 이용해 뿌리 부분을 들어 주면서 뽑아낸다.



삽3.
온상안에서 1차 옮겨심기 후 자라고 있는 모습



삽4.
1차 가식 후, 본엽이 3~4장 나오면 본밭으로 나갈 준비를 한다.



삽5.
본밭 아주심기를 위해, 준비된 채소 모종들.

Gardenin Tip 2015년 1월호 '가든인' 잡지에는 정원관리의 연간 절기별로 채소심기와 식물의 개화등을 그림으로 상세히 찾아볼 수 있다.



아직도 헤매고 계신가요? 우리꽃에 문의 하십시오.

이젠 우리 정원에 맞는 신품종입니다.

"장기개화용" 봄부터 가을까지 쪽~~핍니다!! 비료만 듬뿍!!



에키네시아 레인보우

천상의 화색 5월부터 11월까지
어찌 그리 고울까요?



상록잔디패랭이

4월에서 11월까지 끝내준다.
순천정원박람회 바로 그 주인공



가우라 베이비레드, 베이비핑크, 베이비골든트리

나비가 날았을까? 잠자리가 앉았을까?
5월에서 11월을 날고 앉아 꽃피우는



하늘국화 블루, 허양, 큰꽃, 애기별하늘국화

꽃방석, 말해 봐! 봐야 알지!

4월에서 11월까지 꽃방석인지 확인하면 바로



코레우리 우리드림시리즈, 하디시리즈, 골든불시리즈, 링시리즈, 텅크벨시리즈

아니랄~수, 열~수, 이럴 수 있는거야?

5월에서 11월까지 숨도 쉬지 않고 피워대는 꽃구름 꽃향기

우리꽃 아카데미 2015년 교육프로그램

더욱 전문화되고 특화된 과정을 통해 한단계 높은 정원을 가꾸어 보십시오.



국화분재 전문반 3기

강좌소개

- 15년 역사의 우리꽃 농원에서 체계적인 전문 교육 강좌입니다.
- 삼목부터 묘종, 수형을 만들고 작품까지의 전과정을 지도합니다.
- 실습 작품의 산물을 전시회를 통해 판매합니다.
- 정원 문화와 정서 교류의 장과 맛있는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강사소개

- 국화분재 전문가 이순영 소장
- 현직: 국제농업박람회 자문위원, 함평군 축제기술 자문관
- 주요경력: 함평 나비축제기획 및 총괄소장, 함평 대한민국국화대전 최초기획, 연출
- 주요저서: 수형별로 배우는 국화분재

과정안내

주 최: 우리씨드그룹, 우리꽃영농조합법인
교육기간: 2015년 4월 2일 ~ 11월 5일 (매주 목요일) 총 15강
교육시간: 오전 10시 30분 ~ 오후 3시 30분
장 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송곡리 696) 우리꽃 교육장
수 강 료: 35만원 (중식포함, 가든인 3개월분) - 재료비 별도
강좌혜택: 우리꽃 행사 및 무료특강에 우선기회 제공
교육문의: 전화 031-712-7009 / 팩스 031-634-7991 gardenjoa777@naver.com
교육후기: <http://gardenjoa777.blog.me>

영역 및 강의 과목	내 용
제1강 4월 2일	국화의 재배환경과 생리 국화분재의 정의
제2강 4월 16일	기본이해 (국화분재의 기초이론 및 생리)
제3강 5월 7일	국화분재의 품종별 특성 국화분재의 수형별 재배법 (①적간, 모양목)
제4강 5월 21일	국화분재의 수형별 재배법 (②적부작, 묵부작)
제5강 6월 4일	국화분재의 수형별 재배법 (③현애형, 버드나무형)
제6강 6월 18일	국화분재의 수형별 재배법 (④애근목, 당산형)
제7강 7월 2일	국화분재의 수형별 재배법 (⑤소품분재, 기식작)
제8강 7월 16일	국화대국 왜화재배기술
제9강 8월 6일	철사걸이와 모형만들기 예비작심 및 관리
제10강 8월 20일	수형만들기 및 일반관리
제11강 9월 3일	병해충 방제 및 마지막 수형 만들기
제12강 9월 17일	화분갈이 및 정리 (앞·꽃·숙기)
제13강 10월 1일	소품을 이용한 분경 만들기
제14강 10월 15일	전시를 위한 최종 수형 정리 고간작 재배요령
제15강 11월 5일	국화분재의 감상 및 평가



조경가든대학 '그린아카데미 6기'

과정안내

주 최: 경기농림진흥재단, 주 관: 우리꽃연구소
교육기간: 2015년 4월 1일 ~ 6월 31일 (매주 수요일) 총 14강
* 하반기 과정 추후 공지
교육시간: 오전 10시 30분 ~ 오후 3시 30분
장 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송곡리 696) 우리꽃 교육장
수 강 료: 25만원 (총액 65만원 중 경기도거주자에 한하여 경기농림진흥재단 40만원 지원, 자부담 25만원)
강좌혜택: 우리꽃 행사 및 무료특강에 우선기회 제공 및 수료증 제공
교육문의: 전화 031-712-7009 /
팩스 031-634-7991 / gardenjoa777@naver.com
교육후기: <http://gardenjoa777.blog.me>

강좌소개

- 우리꽃 이전 본사에서의 생생한 실습현장에서 당일 배운 이론을 적용해봅니다.
- 각 분야 전문 강사진의 실질적인 교육내용을 제공합니다.
- 매주 우리꽃 농원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정원문화의 폭넓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 우리꽃 교육의 중심강좌로 그린아카데미 동문회에서 다양한 정원문화 활동을 전개합니다.



가든조아 문의전화 031-712-7009 / 팩스 031-634-7991
gardenjoa777@naver.com

수선화

Narcissus

류제의 정원

수선화는 튤립, 히아신스와 함께 대표적인
봄의 전령사이다.
이 아름다운 꽃에 대해 알아보자.



나팔수선화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미니수선

수선화는 지중해 연안 지역이 원산지인 수선화과의 구근식물이다. 개화기는 3-5월로 꽃색은 노랑, 주황, 백색 3가지 색깔만 있어 다양하지 않지만 요즘 육종가들의 노력으로 분홍색에 가까운 수선화들이 선보여지고 있다. 한국에서 수선화는 튤립이나 히아신스에 비해 인기가 떨어지는 추세이지만 튤립, 히아신스가 한국에서는 구근비대가 잘 되지 않아 한 번 구입하면 1~2년 정도만 감상이 가능한데 반해 수선화는 한국에서도 구근비대가 잘 되는 편이라 튤립, 히아신스에 비해 오래 키울 수 있는 식물이다. 또한 봄 정원을 꾸민다면 튤립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식물이기도 하다.

참고로 향기가 있는 수선화도 있는데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품종에서 추천한다면 '제라늄' 원스틴차칠이 있다. 이 두 품종은 히아신스 못지 않게 향기가 강하고 좋다.

식재 정보

배수가 좋은 땅에 심는다.

수선화는 다른 구근식물과 마찬가지로 배수가 잘 되는 땅에서 잘 자란다. 심고자 하는 곳이 배수가 좋지 않다면 배수가 좋은 흙으로 바꿔주면가 밭이랑을 만들어 그 위에 심어야 한다. 심는 깊이는 흙을 10cm정도 파고 심으면 좋으며, 일단 심어두고 비배를 적절히 한다면 3-5년간은 캐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잘 자란다. 화분재배 시에는 깊이 20cm이상의 화분을 준비하여 구근 높이만큼 흙을 파고 구근을 심어준 후 햇빛을 잘 보여주며 키우면 잘 자란다. 참고로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항상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두고 통풍에도 신경 써주어 잎을 최대한 오래 보존해야 내년에도 좋은 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선구근

비료, 물주기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

수선화는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면 된다. 구근식물들은 대체적으로 건조에는 강하고 과습에 약하기 때문에 물을 너무 자주 주려 하면 안 된다. 하지만 너무 건조시켜 잎을 시들게 하면 구근비대에 영향이 있으므로 물주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정원에서 수선화를 키운다면 물주기에 신경을 거의 쓰지 않아도 된다. 비료주기는 가을에 완숙퇴비를 수선화를 심은 곳 근처에 뿌려주고 봄에 추가적인 속효성 비료를 사용하면 내년엔 더욱 풍성한 꽃을 기대할 수 있다. 추가적인 비료를 줄 때는 비료를 설명서에 써있는 비율로 희석하여 2주 한번 물과 함께 주면 된다.



분홍빛을 띤 수선화

번식법

분구 번식을 주로 한다.

수선화의 번식법에는 씨뿌리기, 분구 등이 있는데 씨앗번식을 하면 개화까지 이르는 데 5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리므로 육종을 목표로 하거나 파종이 취미가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는다. 분구는 수선화를 옮겨심을 때 하면 되는데 6월쯤 수선화의 잎이 지고 구근을 수확할 때 늘어난 구근을 나누면 된다. 지름 2cm이하의 작은 구근들은 나누게 되면 생육이 느리므로 너무 자잘한 구근들은 나누지 않도록 한다



겹수선

수선화의 월동

중부지방에서는 화분에 심은 채
노지월동 시키지 않도록 한다.

수선화의 구근 관리
배수가 좋은 곳이라면 캐지 않아도 무방하다.

튤립은 고온다습에 극히 약해 잎이 지고 나서 구근을 캐지 않으면 안 되지만 수선화는 어느 정도 습도에 강하므로 배수가 잘 되는 곳이라면 구근을 캐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된다. 하지만 수선화를 확실히 보존하기를 원한다면 잎이 지고 나서 구근을 캐어낸 후 건냉암소에 보관한다.

수선화 재배지가 아무리 배수가 좋다고 하더라도 한 곳에 심은 지 3-5년이 되면 캐어내서 다른 곳에 심어주는 것이 좋다. 초화류가 한 곳에 너무 오래 심겨져 있으면 점점 세력이 약해지다 죽어가기 때문이다. 이 때 분구도 같이 실시하면 좋다.



향기수선 제라늄. 매우 근사한 향기가 난다.



원스틴차칠. 향기가 매우 좋다.

수선화 구근을 정원에 심었다면 월동에 문제가 없지만 독자가 사는 곳이 중부지방이라면 화분에 심었을 경우 밖에서 월동하면 거의 얼어 죽는다.

그러므로 수선화를 심은 화분은 겨울 동안 0-5도 정도 되는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좋다.



사초 골드라이트

선의 아름다움

사초 속 (Genus Carex)

사초과 카렉스 속 식물은 매우 큰 속으로 1,500종 또는 그 이상의 방대한 종류를 포함하는 대표적 그라스 식물이다. 극지방, 한대, 온대지방은 물론 열대 지방까지 그리고 바닷가부터 높은 고산에 이르기까지 서식하는 다년생의 뿌리줄기 또는 수염뿌리 식물이다. 겨울 잎이 마르는 종도 있지만 많은 종류들이 상록의 겨울을 보낸다. 정원의 이용에 있어서도 양지, 음지, 습지, 건조지, 암석가든까지 생육특성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종들은 늪지대, 습한 삼림지, 또는 물가에 서식한다. 이들은 잎에 무늬를 가진 종들이 선호된다. 무늬가 좋은 식물은 그 다양성이 놀랍고 생육특성도 대체로 강건할 뿐만 아니라 일부 종들은 매력적인 향기를 가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버처럼 생긴 잎은 주로 선행이고, 기단부가 딱딱하고 속이 찬 삼각형의 줄기를 감싸고 있다. 대체로 내한성이 강하지만 최근의 다양한 무늬 품종은 뉴질랜드와 호주, 그리고 일본 등지에서 육성된 것들과 열대지방 원산인 품종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열대 혹은 내한성이 약한 품종은 예쁜 화분에 담아 디스플레이 용으로 많이 활용된다. 꽃이 지고 난 후 여름이 되면 지저분한 잎을 잘라 새잎으로 갈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로 부리는 땅속 런너를 이루어 자라는 식물과 포기형으로 자라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줄기를 기는 타입은 포기를 나누고 포기형은 딱딱한 기저부를 붙여서 삼목 증식한다.



사초 아이스댄스



사초 금방석



사초 아이스댄스



흰줄무늬대사초



사초는 물속에서도 잘 살아간다.



겉사초

탐을 쌓았을까?

층꽃 속 (Genus Caryopteris)

층꽃은 잎과 줄기에 향기를 가진 속으로 주로 낙엽성의 관목과 다년생 식물 6종이 있다.

건조하고 비탈진 바위주변과 산림지를 포함한 히말라야와 동 아시아의 산악지. 바닷가 절벽 등 다양한 곳에서 서식한다. 이들 잎은 대생하고 잎의 가장자리는 물결모양과 톱니형을 이루며 두껍다. 일반적으로 보라색의 푸른 꽃이 층상꽃차례나 원추꽃차례로 핀다. 이들의 매력적이고 향이 나는 잎과 꽃을 위해 정원에 도입되는 데 주로 늦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고, 혼합되거나 관목화단에 적합하다. 우리꽃연구소에서 품종개발을 한 하양색과 핑크색의 품종은 이들을 더욱 인기 있는 속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내한성은 대체로 강하지만 겨울 물이 차는 곳이나 너무 건조한 곳에서는 겨울을 못 날수도 있다. 따라서 적절히 비옥하고 밝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밝은 태양아래의 장소에 기른다.

기온이 -15℃ 이상 떨어지는 지역과 특히 여름이 서늘한 지역은 햇빛이 잘 드는 벽쪽에 붙여 겨울의 강한 바람을 막아주는 것도 좋다. 하지만 층꽃은 종자가 떨어져 그

해에 꽃을 피워 내므로 오히려 이른 봄 너무 많은 종자가 발아되면 일부만 남기고 제거 한다.



분홍층꽃

▼ 층꽃



하양의 층꽃





일일초 ▲



매일 계속되는 꽃의 향연

일일초 속 (Genus Catharanthus)

마디카스카르의 트인 관목 숲과 숲 가장자리에 사는 일년생과 다년생 8종이 포함된 속이다. 마주보는 잎은 단엽으로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는 형태로 잎은 광택이 난다. 꽃은 5개의 잎을 가지고 피는 데 빈카미이너(Vinca minor)와 같이 생겨 Catharanthus roseus를 Vinca rosea로 표현하기도 하여 혼란을 주기도 한다. 추운 지방에서는 일년생 화단용으로 이용되지만 겨울의 온실 또는 밝은 실내에서 기를 때는 꽃이 계속해서 피는 부재 초화로 기르기도 한다. 주로 화단의 테두리식물로 혹은 혼합식재용으로 재배한다. 약간의 음지내성이 있어 활엽수나 밝은 건물음지에 적용해도 좋다.

재배 토양은 물 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과 통풍이 잘 되는 곳을 좋아한다. 햇빛을 좋아하지만 약간 그늘에서도 잘 자란다. 꽃을 계속해서 보기 위해서는 매달 1~2회의 액비를 공급하면 좋다. 종자를 이용 하게 되므로 이른 봄 13~18℃에 씨를 뿌린다. 온실에서 잎 진드기와 흰가루병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속근 수레국화



수레국화의 화색은 다양하다.

수수함과 강렬함을 동시에 가진

수레국화 속 (Genus Centaurea)

우리에게 최근 익숙해진 수레국화는 보통 2년생으로 주로 보라색을 피우는데 최근 우리꽃에서 허양, 분홍, 빨강, 흑색 등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수레국화 속은 주로 건조한 지역, 바위가 많은 산의 경사면, 아고산대의 초원, 삼림지대, 모래언덕에 서식하는 일년생, 이년생, 다년생, 아관목 식물로 450종의 대 그룹에 속하는 속이다. 주로 유럽, 지중해, 아시아, 호주, 북미 등 전세계에 걸쳐 나타난다. 잎은 어긋나기를 하고 주로 로제트 형으로 자라다 추대를 시작하며 줄기를 키운다. 간혹 은색의 털이 있어 블루색 혹은 은색의 잎으로 자란다. 꽃은 작은 꽃들이 열편으로 길게 관 모양으로 달려 두상을 이룬다.

정원의 테두리 또는 바위로 된 정원에서 자라며 몇몇은 초원이나 야생화 정원에 혼성하여 색을 중간 톤으로 조화시키기 위해 이용한다. 몇몇 종은 추위에 잘 견디며 일년생처럼 자란다. 다년생은 여름 화단용으로 좋고 모든 종이 벌과 나비를 불러 모른다. 우리는 최근 수레국화를 가을이나 이른 봄에 뿌려 축재용으로 많이 이용하거나 혼합종에 사용하여 화색을 파스텔 톤으로 하는 방법과 화려함을 뽐내기 위해 주로 이용한다. 해충의 피해는 별로 없지만 가끔 흰가루병의 발생이 있을 수 있다.



수레국화집사



백광영박사/우리씨드그룹 회장과 함께하는 정원식물의 속 출처 보기는 가든인 독자들에게 식물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그냥 이름 없는 꽃이 아니다. 식물에 속한 '속'이 있고 '학명'이 있고 '한글명'이 있다. 그리고 보면 한 두 가지 이름이 아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식물은 그 이름만큼이나 꽃색, 향기, 아름다움으로 보답하기도 한다. 정원의 속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빌려 식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보자.

Special Issue

아는 만큼 재밌다!

- 정원식물(초화류) 따라잡기 -

정원식물로서 초화류는 많은 종류가 있고 예전에 비해 이제는 접할 기회가 많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집앞 화원에서 볼 수도 있고, 직접 재배농장을 찾아가서 살 수도 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뒤적거리면서 많은 정원식물을 접할 수도 있다. 그런데 관심은 많지만 아직 초보라서 일년생, 이년생, 다년생, 숙근초 등 초화류 용어에서부터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호에서는 초화류 용어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고 정원에서 이용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초화류를 직접 씨앗을 뿌려 재배하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서 알맞은 품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진1



사진2

I. 일·이년생 식물(Annual and Biannual)

■ 일·이년생 식물이란?

한 해에 생활사를 모두 마치는 식물(죽는 식물)을 일년생이라고 하며, 첫 해에 잎을 키우고 다음해에 꽃을 피우고 생활사를 마치는 식물(죽는 식물)은 이년생이라고 한다.

일·이년생 식물들은 생활사가 짧지만 그 용도가 다양하고 유지와 재배가 쉬운 편이다. 또한 어떤 정원에서도 분위기에 맞추어 품목을 선택하여 식재할 수 있다. 빠른 시간 안에 생생한 색감을 나타낼 수 있으며 나무와 관목 또는 숙근초(다년생)가 자리 잡을 때까지 정원의 그 틀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화단, 화분, 늘어뜨리는 바구니 재배 등에 모두 잘 이용된다.

■ 정원에의 이용

정원을 새로 만든 경우에 나무와 관목이 정착하기 전에 일·이년생 초화류는 빠르게 자라서 여러 색을 감상할 수 있다. 식물들이 자리잡은 정원에서는 큰 틀에서 공간을 채우고 색감을 바꾸는데 쓰인다. 향기로운 꽃은 벤치나 의자가 있는 구간이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심어 보고 즐긴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지역(벽과 울타리 아래)에는 햇빛이 약한 지역에서도 자랄 수 있는 임파첸스와 코리우스와 같이 빛에 둔감한 식물을 심는게 좋다. 화분에서 자라는 식물은 공간이 제약되는 베란다나 테라스 같은 곳에 특정한 목적으로 쓰인다. 일년생 덩굴 식물은 나무나 다른 지지대를 이용해 자란다.

1) 정형적 화단

공공장소 등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 주의 깊게 디자인된 패턴으로 주로 대조되는 모양과 색으로 구성이 되는데 전체 화단이 색깔있는 카펫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사진1).

이런 작업은 플러그나 포트에서 길러진 어린 묘를 재배, 식재하는 계획부터 필요하다. 봄 식재는 팬지나 꽃무, 물망초 등을 튤립과 함께 혼합하거나 여름에는 밝은 톤의 꽃들과 은쭉과 백요국 등은 색 톤의 잎들이 있는 식물들을 함께 이용하면 좋다.



사진3

3) 종진재로서의 1, 2년초

많은 1년초와 2년초들이 쓰이는 방법으로 한 계절에서 생기는 빈틈을 메우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다(사진3). 물망초처럼 꽃이 빨리 피는 종들은 구근과 잘 어울릴 수 있고 늦게 꽃 피우는 숙근초들 사이의 빈틈을 메우는 데에도 좋다. 늦은 시기에 꽃이 피는 코스모스 같은 종들은 빨리 꽃을 피우는 숙근초나 한번만 꽃이 피거나 늦은 여름동안에 반 휴면 상태에 들어가는 리아트리스, 백합 등의 종들을 대체하기에 좋다. 키가 큰 일년초들에 의해 생기는 그들은 자생지에서 관목지대에 자라는 숙근초에게 좋을 것이다. 새로 식재한 관목과 다년생 숙근초 정원에서 1, 2년초들은 몇 해 동안 지면을 채우고 생동감을 연출하는데 유용하다. 많은 이년생들은 낮은 관목 지역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디기탈리스가 아주 대표적인데 낮은 관목들 사이에서 위로 솟아나와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또, 접시꽃도 마찬가지로 양귀비도 빠질 수는 없다.



사진4

4) 자연스런 색깔, 혼성식재

자연스런 색깔과 자유로운 정원의 계획은 실제로는 아주 주의 깊고 철저한 설계와 계획이 필요하다. 보기에 자연스럽고 의도가 없어 보이는 식재를 창조적으로 하기 위한 시도는 자연에서 보다는 더 아름다운 정원을 제공할 수 있다.

한 가지 색상이 우점하여도 다른 색들과 자연스럽게 산재되어 섞여 한 색과 다른 색과의 경계가 불분명하면서도 하나의 숨겨진 물이 있어야 한다. 은회색의 잎과 솜털로 쌓인 연한 블루 사루비아를 우점으로 하면서 우아하고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고 밝은 주황의 제라늄의 조화로움은 밝고 귀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사진4).

5) 1년생 덩굴식물

덩굴 식물은 스스로 감거나 기어오를 수 있다. 임시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스크린이나 아치 등을 덮어주는 1년생 덩굴식물은 여름기간에 그늘을 제공하여 식재한 다른 식물들이 잘 정착하는 것을 돕기도 한다. 가정의 베란다에서도 화분에 지지대를 설치해주면 자연스럽게 감고 올라가기 때문에 재배하기 어렵지가 않다(사진5). 스위트피는 꽃이 아름다워 절화용으로 잘 사용되며 나팔꽃, 덩굴콩 등 무성하게 자라는 덩굴 식물들을 이용할 수 있다. 가을이 되면 모두 죽기 때문에 관목이나 나무를 전정하는데 문제가 없다.

II. 다년생 초본식물(Perennial)

■ 다년생이란?

다년생이란?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2년 이상 겨울을 나고 한번 성숙에 이르면 매년 꽃을 피우는 식물이다. 그러나 정원에서 다년생이란 말은 보통 매년 꽃을 피우고 종자를 맺고 겨울이 되면 줄기가 마르고 다음해 다시 생장을 지속하는 식물들을 말한다. 이들이 정원의 대표



사진6

적인 주인공들이고 '숙근초'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원의 특색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잊점도 있고 한번 조성을 하면 몇 년에 걸쳐 감상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초본성 다년생은 조경적으로 매우 뛰어난 효과를 주지만 정원에서 각각의 성장조건을 맞춰주는 것은 필수적이다. 야생화는 기후, 생활형, 토양의 타입 등이 제각각인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곳이나, 트인 곳이나, 햇볕이 강한 곳이나, 그늘진 곳이나, 축축한 곳이나, 건조한 곳이나 또는 토양이 비옥한 곳이나, 척박한 곳이건 간에 주어진 조건에 맞게 잘 선택하고 식재하여 관리하면 대체로 잘 자란다.

그리고 야생화 혹은 다년생 식물의 식재시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거의 대부분의 식물들은 포트재배 후에 출하하므로 어떤 시기에 식재해도 무관하다. 하지만 식물의 특성과 개화특성에 따라 그 심는 시기와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식물은 대체로 연중 생장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데 다년생의 경우 꽃피는 계절이 그 중심점이다. 예를들면 봄에 피는 식물은 가을에 충분히 몸을 키워 그 힘으로 꽃을 피운다. 여름에 피는 식물들은 가을과 봄에 세력을 키우고 가을식물은 주로 여름에 세력을



사진7

키운다. 그렇게 봄에 꽃피는 식물과 여름에 꽃피는 식물과 가을에 꽃피는 식물은 서로 경쟁하지만 공존의 길을 선택한다. 따라서 꽃피는 계절보다 2개월 먼저 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자연스럽다. 튤립과 같은 추식구근의 경우 가을에 심으면 겨울을 나고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특히 붓꽃과 같은 식물은 봄에 심으면 그해 꽃을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8-9월에 포기나누기로 심는다. 여름식물은 가을이나 최소한 빠른 봄에 심어주는 것이 좋다.

야생화는 그 형태적 다양성이나 장식적 가치가 매우 다양하고 종류가 많아 이용자의 취향에 따른 선택이 쉽다. 그러나 반대로 정원의 어떤 기후환경이나 자연조건에도 큰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종류들의 생리 생태적인 특성을 잘 파악하고 디자인해야 함은 당연하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인공의 공간에 살면서 자연성의 회복을 꿈꾼다. 그러나 정원은 오히려 자연보다도 더 아름다운 자연스러움이 현실화 되는 곳이다. 그 중심에 다양성의 혼합이 있다. 가든인 3월호에서 다룬 '혼합식재'란 최근에 생긴 개념이다. 다양한 식물의 유전적 특성을 이용하여 제한된 공간에 연출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키와 색깔, 질감과 폼 그리고 줄기나 잎의 전개까지도 고려하여 구분되게 혼합적용(제한된 공간에 각각의 여러 식물들이 각기 다른 자리를 차지하면서 채워지는 정원 식재, 사진6)하는 방법에 생리 생태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혼성식재(동일장소에 여러종류를 같이 식재하는 방법, 사진7) 방법으로 자연보다도 더 아름다운 자연스러움을 정원에 구현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원은 자연 환경을 무시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특히 물과 햇빛, 온도가 가장 중요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진5

가든인
추천1
씨앗재배

색색의
정원을 만들자!

1·2년생 식물

가정에서 직접 씨앗을 파종해서 올해 바로 꽃을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재배하기 쉽고 시중에서 구매가 가능한 1,2년생 식물을 추천해 드립니다.

장미꽃양귀비

화려한 봄 외출, 정원은 분주해진다!

장미꽃인가요? 아니 작약꽃인가요? 풍성하게 피는, 그리고 너무 강렬한 이 꽃은 새롭게 선보이는 장미꽃양귀비입니다. 대형의 꽃이 주는 화려함과 강렬한 아름다움을 선사할 화려한 봄 외출, 기대하세요. 당신의 눈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파종시기: 9~4월/개화기: 5~6월/초장: 70~80cm



금어초

내가 사랑하는 열대어 꽃가든

새로 사온 가든 수족관에 주황색 금붕어 한 마리 보이네요, 분홍색 칼라테트라, 노란색 구피... 제각각 아름다운 색을 뽐내며 자유롭게 헤엄치며 입을 벌리고 있네요. 배고프다고, 절화 및 화단용으로 이용되고요, 꽃의 모양이 헤엄치는 금붕어를 닮은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파종시기: 3~5월/개화기: 5~9월/초장: 70~80cm



물망초

나를 잊지 마세요(forget me not)

그 사람이 그리웁니다. 사랑했던 연인이, 다정했던 그 친구가, 그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늘 우리의 곁에서 잔잔한 미소와 그리움을 선사하는 물망초 꽃망울, 나를 잊지 마세요, 저도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파종시기: 9~5월/개화기: 5~7월/초장: 25~30cm



설악초(유포르비아)

한 여름밤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름산에 하얗게 눈이 내립니다. 소복히 쌓입니다.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한 여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가을에도 눈은 녹지 않은채 새하얀 단풍이 절정입니다. 하얀색 무늬로 뒤덮인 잎은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파종시기: 3~6월/개화기: 6~10월/초장: 60~70cm



접시꽃 '여인'

'접시꽃 당신', 새롭게 다가옵니다.

'접시꽃 당신'. 오래전부터 우리 화단에 단골손님으로 친숙하네요. 이번에는 새로운 접시꽃 손님을 초대할까 합니다. 고급스런 색상의 접꽃을 입은 화려한 여인의 접시꽃입니다. 건강미가 넘치고 재배하기도 쉬운 우리의 정서에 알맞은 꽃입니다.

파종시기: 3~9월/개화기: 6~8월/초장: 70~80cm



사루비아 블루빅토리

파란 꽃물결의 감동을 전합니다

깨끗이라 불렸던 빨간색 사루비아. 우리의 기억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파란색 꽃을 피우는 사루비아를 기억해 주세요. 라벤더꽃으로 착각할 정도로 길게 솟아나는 블루톤의 꽃대는 여름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새로움의 기쁨을 전해드립니다.

파종시기: 3~5월/개화기: 6~10월/초장: 40~50cm



바늘 꽃

신기한 오색바늘

'올해도 과꽃이 피었습니다~' 어렸을 때 즐겨 불렀던 동요 한편이, 추억 한편이 떠오릅니다. 이 과꽃은 가까이 다가가면 뿔릴 것 같은, 아니 뿔리고 싶은 오색바늘 모양의 신기한 과꽃입니다. 바늘과 같이 가늘게 피는 이색적인, 그래서 더욱 갖고 싶은 '바늘 과꽃'입니다.

파종시기: 3~6월/개화기: 6~10월/초장: 50~60cm



루드베키아 그린아이즈

푸르른 그린 눈동자가 아름다움

검은색 눈을 가진 루드베키아,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푸르른 그린색 눈을 반짝이는 새로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란색 드레스는 더욱 눈을 아름답게 돋보여 줍니다. 고급스런 이미지가 한층 배가되어 당신의 꽃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파종시기: 3~6월/개화기: 6~10월/초장: 50~60cm



스트크

라일락 진한 꽃향기에 잠 못이룰 행복한 밤

아침이면 일어나 연보라빛 꽃을 피우고 한나절 내내 꽃산책을 합니다. 어둠이 내려오면 라일락꽃 진한 향기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화단, 베란다창가, 행잉 바스켓 등에 가꾸어 매혹적인 향기를 즐기세요.

파종시기: 3~5월/개화기: 6~10월/초장: 40~50cm

가든인
추천2
씨앗재배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만나요!
다년생 초본식물

올해 꽃을 볼 수 없어도 내년부터 꽃을 보기 위해 다
년생초본을 가정에서 직접 씨앗을 파종해서 기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재배하기 쉽고 시중에서 구매가
가능한 다년생 식물을 추천해 드립니다

샤스타데이지 '백설공주'

일곱 난쟁이는 어디에

하얀 드레스에 크고 선명한 노란색 눈망울을 가지고 있습니
다. 키가 커서 잘 쓰러지는 샤스타데이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니다. 아담한 키에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의 맑은 하얀색 꽃.
정원왕국을 꿈꾸는 최상의 품종주입니다.

파종시기:3~9월/개화기:5~6월/초장:25~30cm



헬리오트롭

바닐라향에 몸을 싣고

은은한 바닐라향이 바람을 타고 날아옵니다. 그 향기에 마음을 맡겨봅니다. 향기식물로 허브정원에
잘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보라색꽃 또한 향기와도 잘 어울리네요. 다만 중부지방에서는 따뜻한 겨울
이불(보온이) 필요합니다.

파종시기:3~6월/개화기:6~9월/초장:40~50cm



툼플 파스텔

툼플이 전하는 한 폭의 수채화

잎의 형태가 톱처럼 생겼다하여 톱플이라고 부릅니다. 톱 모양의 초록색 빛은 색색의 그림을 그리고 있
네요. 드디어 여름 초입에 한 폭의 파스텔톤 수채화를 펼쳐보입니다. 고달 느낌이 물씬 풍겨옵니다. 전
조에 강하고 꽃이 매우 장기간 피는 장점도 있네요.

파종시기:3~7월/개화기:6~10월/초장:50~60cm

버바스کم

색색의 등불이 정원을 밝힙니다.

눈부시다. 수많은 등불이 모여 기다란 굵은 햇빛을 만
들어냅니다. 주위를 환하게 밝혀줍니다. 색색의 등이
번갈아가며 화려한 꽃무리를 장식합니다. 당신만의 정
원을 밝혀주세요. 개인 정원에 알맞은 꽃으로 고급스
런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파종시기:3~9월/개화기:5~7월/초장:60~70cm



에키나

이국적인 분홍빛 꽃선물

술방울처럼 봉긋 솟아오른 볼륨있는 몸매에 분홍색 원피스가 잘 어울립니다. 이국적인 고급스런 꽃은 정원에 또 한번 잘 어울리네요. 꽃이
지고 난후에도 술방울 모양의 이삭이 아름다움을 이어갑니다.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하면 더 풍성한 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파종시기:3~9월/개화기:6~8월/초장:70~80cm



불가리스할미꽃

추억과 신세대의 만남

어릴적 시골집, 뛰어놀던 추억을 되살립니다. 그 기
억 속에는 양지바른곳 한켠에서 허리 굽혀 봄을 맞이
하던 할미꽃이 있습니다. 그럼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억 속에만 머물지 마세요. 신세대 할미꽃, 불가리
스가 당신의 가슴에 새로운 아름다움과 추억을 함께
안겨 드립니다.

파종시기:3~7월/개화기:4~5월/초장:25~30cm



붉은잎동자꽃

해맑은 아기동자

붉은 빛 화사하게 차려입은 아기동자. 신나게 뒹돈산을
뛰어노느라 달아오른 주황빛 얼굴이 너무나도 귀엽습니
다. 일반 동자꽃보다 진한 주황색의 꽃과 적색의 잎이 잘
어울리는 동자꽃입니다. 대체로 양지를 선호하지만 활엽
수 반음지에도 잘 자라는 꽃입니다.

파종시기:3~9월/개화기:6~7월/초장:30~40cm



가우라(나비꽃)

나비야, 나비야, 어서오너라!

나비 한 마리 날아와 앉습니다. 그 뒤를 따라 소풍나
온 나비친구들 줄줄이 날아와 5월말부터 가을까지
계속 쉬지않고 꽃을 피웁니다. 볼여오는 바람, 그 시
원함이 좋아 한바탕 웃으며 힘차게 날개짓을 합니다.
나비를 연상시키는 꽃은 우리의 정서와도 잘 어울리
네요.

파종시기:3~9월/개화기:6~10월/초장:70~80cm



서양매발톱

봄날, 화려한 날개짓이 눈부시다.

한 마리 새가 날아옵니다. 색색의 새들이 사뿐히 가
지위에 올라 앉습니다. 봄 가지위에 새색이 오르면
화려한 날개짓이 더욱 눈부십니다. 마치 공작새를 보
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서양매발톱은 색상이 매우
화려한 대표적인 봄꽃입니다.

파종시기:3~7월/개화기:5월/초장:50~60cm

가든인
추천3
씨앗재배

올라, 올라,
힘차게 하늘을 향해!

일년생 덩굴식물

덩굴식물을 가정에서 직접 씨앗을 파종해서 기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재배하기 쉽고 시중에서 구매가 가능한 일년생 덩굴식물을 추천해 드립니다.

히아신스콩

하얀 나비, 분홍 나비 누가 먼저 올라가나

빠르게 올라가는 줄기를 따라 어디선가 날아온 하얀 나비, 분홍 나비들이 줄줄이 매달려 아름다운 꽃노래를 부릅니다. 자람이 매우 빠른 덩굴식물입니다. 꽃이 아름답고 열매는 약용으로 쓰이기도 하는 전천후 덩굴친구입니다.

파종시기: 3~5월/개화기: 7~10월/초장: 250~300cm



미나

정원속의 꽃폭죽

밤하늘에 꽃폭죽이 터집니다. 여기저기 아름다운 꽃이 수를 놓습니다. 꽃폭죽은 처음에는 적색으로 피다가 점점 노란색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아니 점점 하얀색으로 바뀌는 친구도 있네요. 스페인국기 모양을 닮았다하여 스페니스프래그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파종시기: 3~5월/개화기: 7~10월/초장: 250~300cm



코베아

컵과 컵받침

큰 꽃이 여름부터 가을까지 피는 덩굴식물입니다. 꽃모양이 컵과 비슷하고 큰 컵받침이 있어 컵과 컵받침(cup and saucer)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꽃이 이색적이면서도 아름다워 인기있는 덩굴친구입니다.

파종시기: 3~6월/개화기: 6~10월/초장: 250~300cm



스위트피 쿠피드

향기 가득, 사랑의 행잉용 덩굴식물

키가 30~40cm 정도 자라는 아담한 덩굴식물입니다. 색상이 다양한 작은 품종으로 화분행잉용으로 인성 맞춥니다. 향기 또한 좋아 달콤한 향기가 정원에 가득합니다. 쿠피드가 보내는 사랑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차세대를 책임질 행잉용 덩굴식물입니다.

파종시기: 9~4월/개화기: 5~7월/초장: 30~40cm



나팔꽃 별시리즈

별나라에서 온 모닝글로리

싱그러운 나팔소리에 상쾌한 아침을 맞습니다. 너무나도 친숙한 덩굴친구 나팔꽃. 이번에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의 기운이 충만한 별나팔꽃과 함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세요. 별나라 나팔소리가 한층 더 감미롭습니다.

파종시기: 3~5월/개화기: 7~10월/초장: 250~300cm



스위트피

꽃이 전하는 달콤한 향기이야기

쭉쭉 자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힘차게 뻗어 나가고 있네요. 주렁주렁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이 매달리는 덩굴식물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꽃이 전해주는 달콤한 향기도 나도 모르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울타리용 뿐만 아니라 포복용으로 이용해도 좋은 덩굴미인입니다.

파종시기: 9~4월/개화기: 5~7월/초장: 170~20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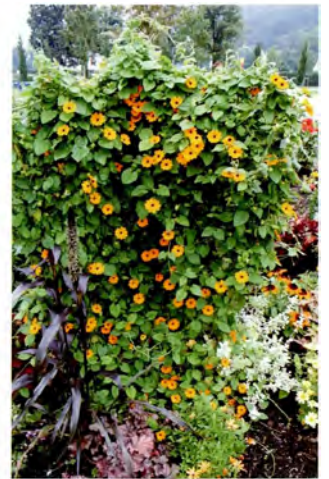


로도치톤

새침떼기 소녀의 자주 미소

아름다운 종모양의 꽃이 진한 자주색꽃을 피우는 덩굴식물입니다. 종소리가 울리려 기다렸다는 듯이 새침떼기 소녀처럼 혀를 속 빼어주세요. 꽃 중앙에 튜브형태로 빠져나와 있는 모습이 매우 이색적인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키도 적당하게 자라며 아름다운 꽃미소를 보냅니다.

파종시기: 3~5월/개화기: 7~10월/초장: 170~200cm



아프리카나팔꽃

밤하늘의 별처럼 걸려있네요.

빠르게 올라가는 덩굴사이로 달콤한 비스킷 닮은 꽃들이 주렁주렁 걸려있네요. 경원의 장식용 식물로, 거리를 화분이나 바구니에 심어 장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꽃 가운데 부분은 초콜릿 색상의 눈을 가지고 있어 '블랙아이'라는 애칭(명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파종시기: 3~6월/개화기: 5~10월/초장: 170~200cm

꽃씨로 직접 재배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로 연락하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든조아. T.031.712.7009



정원 문화로 가는길

텃밭과 옥상정원에 문화를 입혀라.

요즘 도시의 텃밭가꾸기는 거의 열풍에 가깝다. 참 좋은 일이다. 베란다에서, 옥상에서, 화분에서 재배하건 상자에서 재배하건 우리의 농업이 도시로 오고 있다고들 난리다. 그래서 도시농부, 주말농장, 옥상정원, 채소밭 등등 쓰여지고 있는 단어는 다르지만 유사한 개념의 농촌 아니 농업체형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텃밭이란 집터에 딸려 있거나 주변에 딸린 작은 농지, 밭을 의미하고 대체로 3평에서 100평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시골 텃밭이란 주로 생산의 개념보다는 쉽게 구하고 언제든지 뽑아 이용 할 수 있다는 간단함의 요소가 더 크다. 바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점심때 뭐 해먹을까? 하고 고민할 것 없이 텃밭의 오이와 실파 몇 개를 뽑고 찢고 찢어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시골의 텃밭은 유사 이래 농경을 시작하면서 우리와 같이 했을 오래된 문화적 전통이다.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좋은 텃밭문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웬지 도시로 와서 그 문화적 가치를 생성하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텃밭은 생산의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도시의 텃밭, 주말농장의 열풍은 생산의 개념보다는 새로운 문화코드가 결합되어야 한다. 많은 지자체나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주도 되고 있는 이 새로운 도시의 문화혁명이 제대로 정착하고 도시와 결합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도시농업에서, 현재의 주말농장에서, 현재의 옥상텃밭에서 우리만의 문화가 입혀져야 한다.

우리는 독일의 크라인가르텐이나 영국의 얼롯먼트, 일본의 시민농원 등 우리의 텃밭과 비슷하지만 이미 그들은 나름의 도시와 결합된 생활문화형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도시화의 물결이 인구의 과밀화는 물론 아파트화 하면서 주변에 텃밭을 가꿀 수가 없게 된 원인도 있지만 문화로 인식되기에는 아직 초보적인 현상이 아닐까 한다. 우리의 도시 1세대는 대부분 농촌 출신이었고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지금의 도시 2세대는 아파트와 농촌기반세대이다. 그리고 지금 도시 3세대는 전형적인 도시기반 세대로 자연의 선물을 생산하고 즐길 줄을 모른다. 하지만 항상 동경하고 그리워하며 여유를 즐길 준비가 되었다. 물론 앞으로는 개인주택의 세대로 변화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텃밭에 문화를 입힐 수 있을까? 우선 하나의 물과 형식이 필요하고 문화코드가 스스로 자랄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한 제언을 한다. 근교의 주말농장이 되었던, 옥상의 옥상정원이 되었던, 베란다의 상자재배가 되었던 주어진 환경에서 생산, 휴식 그리고 즐길의 3요소가 녹아드는 의미의 현실적 정립이 필요하다. 실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옥상의 휴게시설, 채소밭, 꽃정원의 황금비율인 3&3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바람직한 주말농



장의 개념에서 본다 해도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3물이 적용되도록 법제정비도 가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말농장의 개념에서 3&3물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와 함께 등록 허가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개발로 오히려 도시근교농촌의 황폐화를 막아야 할 것이다. 물론 베란다 상자정원에도 3은 휴식의 상자 그리고 3은 땅의 상자, 그리고 다른 3은 즐거움의 상자가 되고 만약 1이 남는다면 우리의 사랑스런 아들딸의 꿈의 상자로 남기면 어떨까? 3&3물의 가장 큰 효과는 생산이란 개념이 사라질 것이고 농업이란 한계적 개념이 사라질 것이고 그 만큼의 결과적인 휴식과 즐길의 문화가 자라날 것이라 기대한다.

화제를 돌려 옥상정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제 옥상정원은 혼란 테마가 되었다. 특히 대도시의 공공건물과 학교 등에서는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 많은 현장에서 완공 후 1년이 지나고 또 시간이 흐르면 옥상조경은 이미 정원이라기 보다는 녹지로 표현되어야 하거나 옥상 사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원인은 옥상정원을 문화로 인식하지 않고 기능성에 의존한 결과이다. 또 다른 원인은 지속가능한 동력의 부재에 있다. 많은 기관에서 지원된 옥상정원은 준공이후에 시민의 품으로 아니, 그 건물의 최소한의 소비자에게로 이용과 관리의 주체가 넘어가야 하는데 명확하지 않고 애연가들의 휴게 공간으로 전락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우선 정원의 구성요건이 문제가 된다. 첫째, 땅은 일굴 수 있어야 하고 스스로 혹은 인위적으로 유기물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토양의 물리력이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토양이어야 한다. 아직도 많은 경우 경량의 상토를 이용해야 한다는 제약으로 인해 인공의 유, 무기 토양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경량이지만 양분의 용탈과 미량요소 부족한 토양이다. 그러나 비가 오면 물을 대부분 매우 많이 흡수하고 또 건조가 지속되면 다시 물을 공급하더라도 쉽게 물을 받아주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실체에 알맞은 옥상용 용토를 개발, 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최소 몇 년간의 실험과 현장적용의 결과를 가지고 제시되어야 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중 기존에 적용된 여러 복수의 옥상정원의 토양을 채취해 각 구성요소별 토양을 분석 물리력과 화학적 안정성은 물론 미량요소의 유지보충까지도 데이터화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설계시 숙근초를 비롯한 관목과 다년생의

적용을 줄여야 한다. 최소한 3&3의 물은 적용되어야 한다. 그 중 1년초와 채소를 기를 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적용되어 시민들 스스로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옥상의 경우 작게는 100평방에서 큰곳은 1,000평방까지 다양할 것이다. 작은 곳은 이용하는 시민의 수도 작을 것이고 큰 곳은 이용하는 시민의 수가 많을 것이다. 생활텃밭은 문화와 같이 반드시 지속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처음에는 누군가 가꾸어 놓은 상추와 토마토를 얻어먹겠지만 그 작은 나눔의 공간이 자신이 즐기고 가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는 일주일이 행복한 것이다. 그 행복한 이들은 옥상의 정원을 공동체의 문화코드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을 꾸렸다 하더라도 30~40℃는 될 것이다. 옥상에 작은 방갈로와 방갈로의 지붕과 벽면이 수직정원과 식물로 꾸며진 작지만 아름다운 공간이 된다면 어떨까? 이런 휴식의 공간, 즐길의 공간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이제 옥상에도 평면의 개념만 적용하지 말고 수직의 개념도 적용할 때가 온 것이다. 빗물을 이용하고 좋은 햇빛과 바람이 있는 곳이 옥상이다. 이 자연환경을 이용하면 오히려 어떤 정원문화보다도 좋은 소풍의 휴식의 그리고 생산의 정원이 될 것이다. 이제 1차적 옥상 녹화시대를 마감하고 문화의 코드와 자연조건을 이용한 새로운 정원문화를 연출하고 그 주인공을 시민들이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꽃과 정원과 채소는 우리사회에 아니 우리 도시에 너무나도 깊숙이 자리잡았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정원의 주인공인 시민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는다. 이유는 우리가 시민들의 정원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가우라 베이비

여심을 자극하는 분홍아기나비

꽤 이른 봄에 꽃밭을 거닌다. 큰 화분속에서 재배된 가우라 베이비는 많은 꽃을 피워내며 이른 봄 꽃잔치를 마련한다. 예상치 못한 아기나비들의 봄나들이에 봄의 여심은 날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대에게.



봄, 이, 왔, 어, 요

긴 겨울동안 따뜻한 품안에서 머물던 새로운 봄꽃이 부화되면 멀지 않아 봄날개를 저으며 새로운 꽃생명이 태어난다. 새로운 생명을 맞이 위해 봄나들이를 나간다. 드디어 봄이 왔구나!!

봄이 왔음을 실감하게 해주는 건 무엇일까. 2월 뒤에 오는 3월의 달력이 주는 숫자의 의미, 좀 더 가벼워진 옷차림... 아직은 따스한 봄 햇살 보다는 조금은 차가운 봄바람 덕분에 봄이 멀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따뜻한 온실에서 자라 시기를 앞질러 나오는 봄꽃들을 맞이하면서 비로소 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시기마다 만나는 꽃이 늘 반갑기만 하다. 특히 긴 겨울의 암흑시기를 뚫고 일찍 선을 보이는 봄꽃들은 더욱 반갑기 그지 없다. 꽃집 앞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이번에는 우리의 베란다에, 정원에 어떤 꽃을 가지고 와서 놓을까. 큰화분으로 옮겨놓을까, 심을까, 즐거운 고민을 하게 된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생산시설을 직접 찾아 다니면서 더 많은 꽃을 고르기도 한다. 3월이면 벌써 여기저기 따뜻한 온실에서 보살핌을 받은 정원식물들은 겨우내 숨겨놓은 고사리손을 앓다뒹 내밀고 아름다운 꽃얼굴 치장에 여념이 없다. 정성들여 길러준 주인손에서 이제야 가꾸어줄 새로운 주인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정원은

새로운 식구들로 분주한 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봄이면 제일 먼저 할미꽃, 양지꽃이 우리를 반긴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잎을 뽐내는 후케라, 하늘국화 금방석, 인동 해오름은 반짝반짝 광채가 눈부시다. 그리고 야주가, 패랭이, 비단너도부추, 하늘국화 미소 등 많은 봄친구들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봄을 맞으러 미리 나온 봄 정원식물들과 즐거운 봄소풍을 가보자. 그리고 우리정원에, 베란다에서 꽃과 함께 봄을 느껴보는 것도 좋으리라.



할미꽃

봄날의 추억으로 안내합니다.

보송보송 부드러운 아기송털이 살포시 몸을 뒤덮고 있다. 안아주고 싶다. 보듬어 주고 싶다. 어느새 땀 잔잔을 열고 속삭인다. 봄이 왔어요!



하늘국화 금방석

금박와라목매, 불나와라목매

분장원에 달콤한 금방석을 즐기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 노란 금방석이 보라색 꽃줄을 놓으면 금상첨화.



종양자꽃

봄극경 앞섭니다.

꽃은 작지만 아기자기하게 모여 있는 아기 양지꽃. 봄 장미 노랑꽃으로 아삭아삭은 주저리만 빠르게 피복하는 힘을 남부럽지 않다.



비단너도부추

비단머리카락여왕

봄이 왔을까. 고대하던 봄이 온 건 벌써 눈치챈 듯 숨겨놓았던 봄머리를 살짝기 내밀며 봄햇살을 기다린다.



조팝 매직키텐

봄단풍보존해요.

봄이 떠날 나을 봄은색 새까, 꽃은 지리처럼 할 정도로 예쁘게 단장을 한다. 9월에도 볼수있는 새까친구들이 그제 반갑지만 하디.



인동 해오름

황금레가 땀습니다.

황금 레강이 봄가지를 더미 황하게 미소를 짓는다. 봄기운을 받아 위로위로 뿜기 위한 준비작업이 여념이 없는 황금레강 인동을 인애가 기다리는 봄꽃식물이다.



튜너라

꽃에도 명품이 있다.
디스플레이용으로 내놓을 수 없는 근명성,
역시 색깔과 질감이 좋은 일에서 좋기는 인공은
분꽃들을 압도하는 포구함으로 승화된다.



하늘국화 미소

봄부터 가을까지 즐기는 미소

송아를 기다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만 꽃을 보았
및 즐거움을 보았다. 우리의 마음으로 봄을 향해 반가
운 미소를 보았다.

꽃잔디

알하딘 워터나, 봄이 부르는 소리

분꽃잔디에 딱질 수 없는 단풍송이. 내가 만지려고 만
져부터 한한 미소를 보았다. 봄이 부르는 소리이다.



무늬여우꼬리그라스

여우아, 여우아, 워터나-

바닷물 분기온에 봄을 뒤적인다. 노란부리로 봄장한 여
우아마리. 실감할정 확원대 보라 대일 줄기에 띄엄이 없
다.



상록잔디패랭이

사랑합니다. 부모님

이번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 대신 우리나라가 만든
패랭이를 선물하든 어떨까. 봄부터 가을까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가정에서 손쉽게 기를 수 있는
일년생 덩굴식물 씨앗시리즈

클라클라

덩굴조아 10선

나팔꽃, 파란별, 보라별, 분홍별, 스위트피, 로도치톤, 코베아,
아프리카나팔꽃, 히아신스콩, 미나, 아사리나

1봉 3,000원 / 5봉 13,000원 / 10봉 25,000원
(택배비 별도)

가든조아 T. 031.712.7009



축제고민해결!

도시조경/행사/축제에 대한 고민 **CZ**에 연락주세요.
단순히 제품만 납품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 및 축제를 준비하시는
곳에서 사전에 미리 연락주시지요.
행사 시기에 맞추어 품종선별, 디자인, 파종/식재방법, 사후
관리까지 **CZ**가 성공적인 행사를 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상담 및
컨설팅 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대표전화 031-444-1488
팩 스 031-444-1477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67-3층
홈페이지 www.czcorp.co.kr
쇼 펴 물 www.czmart.co.kr



봄

꽃

클레마티스

나른하던 정원이
기지개를 켜다

절찬리

클레마티스 12종 판매중

우리꽃영농조합법인 Tel : 031-634-7990
www.uriseed.com

봄의 들꽃, 희귀종 “깡깡이풀”

매자나무과(一科 Berberidaceae), 다년생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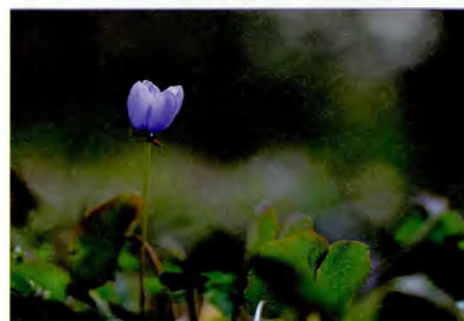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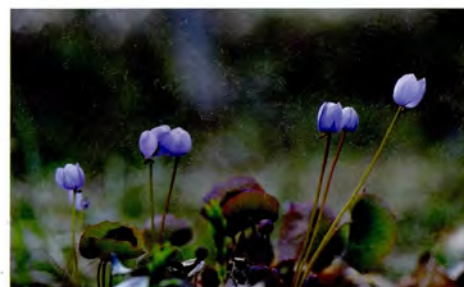


깡깡이풀은 매자나무과의 다년생초로서 원줄기가 없고 근경(根莖)에서 여러 잎이 나오며 근경은 짧고 옆으로 자라며 많은 잔뿌리가 달려 있다. 잎은 긴 엽병(葉柄) 끝에 달리고 원심형(圓心形)이며 길이와 너비가 각각 9cm로서 가장자리가 파상이고 전체가 딱딱하며 연잎처럼 물에 젖지 않는다. 꽃은 4~5월에 피고 지름 2cm로서 홍자색이며 1~2개의 화경(花莖)이 잎보다 먼저 나와서 끝에 꽃이 1개씩 달린다. 열매는 넓은 타원형이고 끝이 부리처럼 길며 흑색이고 타원형이다. 깡이풀, 선황련, 토황련, 산연꽃, 황련, 조황련 등의 속명이 있다.

봄의 야생화 들꽃중 '깡깡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하지만 한번 깡깡이를 만난 사람들은 다시 물어도 '깡깡이풀'을 손꼽아 말할 것이다. 꽃이나 꽃잎, 잎까지 모두 티 하나 허용치 않는 자태를 뽐내는 들꽃이다. 이달 소개하는 들꽃은 그 중 '깡깡이풀'로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식물'이고 특별히 취급을 받는 전 세계 1종 1속의 '깡깡이풀'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희귀종으로 알려져 있다. 봄의 숲속 양지바른 길가에 봄꽃이 한창이며 복수초와 현호색이 지천이고 열매지와 함께 유난히 눈길을 끄는 풀꽃은 깡깡이풀입니다. 복수초나 열매지와 마찬가지로 꽃을 피우려면 씨앗으로 발아를 시키고 3년이 지나야 첫 꽃을 만날 수 있는 성



장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다. 아마도 이런 결과와 희귀성 식물로 지정 받은 것이다. 종자에 당분이 존재하는 밀선이 있어 개미 등의 곤충이 잘 물어서 전파시킨다. 따라서 자연상태에서는 개미들의 활동 범위내에서 일정한 범위로 군락을 이루어 자라는 경우가 많다. 자생지에 따라 독특한 형질을 나타내는 지역 형이 뚜렷한데 크게 구분하여 복위 38°를 중심으로 남쪽에 생육하는 개체들은 잎이 전개되기 이전에 꽃이 피며 다화성으로서 관상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북쪽에 생육하는 개체들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크며 잎과 꽃이 동시에 피고 비다화성으로 관상가치는 떨어진다. 씨앗에 날개도 없고 숨털도 없어 자신의 씨앗을 멀리멀리 퍼뜨릴 방법이 없는 깡깡이풀이 개미의 힘을 빌리고자 만들어낸 지혜인 셈입니다. 눈부신 연보랏빛 깡깡이풀 꽃잎이 다 지고 나면 아쉬움이 크지만 그 후에 바로 귀여운 잎새들이 펼쳐지고, 다음엔 열매가 익으면 씨앗을 지고 가는 개미를 만날 것이다. 흰색과 보라빛의 청초한 모습을 가든인 독자들에게도 화장한 봄날 숲 속을 찾아 산책길에 귀한 들꽃친구를 만나기를 바란다.



이명호의 야생화

독성이 강한 예쁜 꽃 "현호색" 종류들 비교·관찰하기



글 사진 이명호 이명호의 야생화
http://www.skyspace.pe.kr

예쁘지만 독성이 강한 꽃

예쁜 꽃들이 흔히 그러하듯, 현호색 종류들도 꽃은 예쁘지만 아주 강한 독성을 갖고 있다. 현호색科的 식물에는 현호색 무리들과 괴불주머니 무리들이 있는데 이들의 모습도 정말 비슷하기만 하다. 대개 현호색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식물 종류들은 주로 홍자색 꽃들이 많고, 괴불주머니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식물 종류들은 노란색의 꽃들이 많은 편이다. 현호색 종류들은 모두 땅속에 둥근 덩이줄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강한 독성을 가짐과 동시에 다양한 약재로 쓰이기도 한다.

현호색의 특징

현호색科的의 여러해살이풀이다. 우리나라 각처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데, 습기가 있는 곳을 매우 좋아한다. 덩이줄기는 지름 1cm 정도이고 여기서 나온 줄기는 20cm 정도 자란다. 밑부분에 포 같은 잎이 1개 달리고 저기서 가지가 갈라진다. 잎은 어긋나고 잎자루가 길며 1~2회 3개씩 갈라진다. 갈래조각은 도란형이고 윗부분이 깊게 또는 결각상으로 갈라지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뒷면은 분백색이다. 한국 및 중국 동북부를 거쳐 시베리아까지 분포한다.

현호색의 아름다운 꽃

꽃은 4월에 피고 연한 홍자색이며 총상꽃차례로 5~10개가 달린다. 화관은 길이 2.5cm 정도이고 뒤쪽은 꿀주머니로 되며 앞쪽은 넓게 퍼져 있다. 잎의 형태에 따라 많은 종류로 갈라지며 꽃의 색은 홍자색이 가장 많지만, 그 외에 자라는 지역에 따라서 자주색, 분홍색, 흰색 등 다양하다. 꽃 색깔은 토양조건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장의 꽃잎이 아래위로 벌어져 있는 모습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새끼 새들이 먹이를 물고 나타난 어미 새를 보고 먹이를 서로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연상된다.

현호색 종류들의 상세 분류

기본종인 현호색은 잎이 호생하고 잎자루가 길며 3개씩 1~2회 갈라지고 열편이 도란형이다. 줄기 끝에 달린 포(苞)는 타원형이고, 끝이 빗살처럼 갈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뱃살현호색은 잎이 3개씩 갈라진 후 소엽이 선형 또는 피침형인 점이 다르며, 애



각시현호색(잎)



각시현호색



갈퀴현호색



날개현호색



남도현호색



돌현호색



빗살현호색

기현호색은 열편이 깃처럼 많이 갈라지고 최종열편은 선형인 점이 다르다. 이 밖에 왜현호색과 좁현호색은 소엽이 도란형 또는 장타원형이지만, 왜현호색은 덩이줄기에서 1개의 줄기가 올라오는 반면 좁현호색은 보통 5~6개의 줄기가 뿌리에서 뭉쳐 올라온다. 울릉도에서 자라는 섬현호색은 꽃이 흰색에 가까운 연한 황색이며 열편이 뾰족뾰족하다. 갈퀴현호색은 높은 산에서 군락으로 자라고, 꽃받침 끝이 갈퀴처럼 갈라지며 향기가 좋다. 점현호색은 잎에 흰색 반점이 많고, 빗살현호색은 잎이 빗살 모양이다. 들현호색은 낮은 들판에서 자라고 잎이 둥글며 꽃이 유난히 붉은 홍자색이다.



빗살현호색



섬현호색



식현호색



수염현호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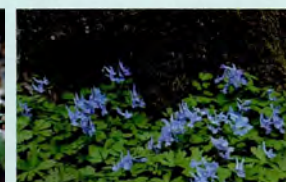
애기현호색



왜현호색



점현호색



좁현호색



현호색



흰갈퀴현호색

새로 발견이 된 현호색 종류들

꽃은 4월에 피고 연한 홍자색이며 총상꽃차례로 5~10개가 달리고 새로 발견이 되어 아직 도감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못한 현호색 종류들도 많다. 잎이 둥글면서 가장자리에 붉은색 테두리를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 각시현호색, 좁현호색과 비슷하지만 꽃잎을 정면에서 볼 때 내화판의 정단이 V자 모양으로 함몰되며 순판 끝이 붉거나 푸른 빛을 살짝 띠는 남도현호색, 꽃이 자줏빛이 도는 흰색이고 아래쪽 외화판 선단 모양이 쇠뿔형인 쇠뿔현호색, 외화판의 양측이 날개 모양을 하고 있는 날개현호색, 수염 모양의 꽃받침을 가지고 있는 수염현호색 등이 있는데, 이 종류들은 이름만 들어도 꽃의 형태가 어느 정도 그려지는 이름들이다.

현호색의 용도

땅속에 있는 덩이줄기에 약간의 진통효과가 있어서 두통, 복통, 월경통, 관절통 등 각종 통증에 이용된다. 혈액순환작용도 있어서 진통작용을 촉진시킨다. 유효 성분으로서 코리다린, 베르베린 등 여러 성분이 밝혀졌다. 꽃이 예뻐서 관상용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방에서는 덩이줄기를 정혈제·진경제 및 진통제로 사용한다.

가든인 TIP : 식물의 독성과 약성을 알고 정원에 식재해야한다. 특히 어린이 정원을 설치 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현호색



흰갈퀴현호색

수직 정원의 왕자 타잔

숲에서 태어난 타잔의 선물,
이제 여러분께 바칩니다.



수직정원 이제 너무 간편합니다. 타잔이 끝내줍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한 수직정원

가정용 **타잔**

출시기념 특가판매

출시기념 특가

3 × 3구(400mm x 400mm)구성
홀더 9개, 철망, 상토, 홀더 망, 고정나사

~~40,000원~~ 20,000원

3 × 6구(400mm x 800mm)구성
홀더 18개, 철망, 상토, 홀더 망, 고정나사

~~70,000원~~ 35,000원

6 × 6구(800mm x 800mm)구성
홀더 36개, 철망, 상토, 홀더 망, 고정나사

~~120,000원~~ 60,000원

위의 모든 제품은 배송비 및 부가세 별도 상품입니다.

기본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은 문의 후 추가구매
가정에서는 소량 구매 시 식물을 제외한
선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넓고 많은 수량을 할 때는 자동관수
등의 추가 선택하시면 관리에
매우 편리 합니다.

50%
D.C



자! 준비 되었나?
슬슬 시작 해 볼까?

핸드드라이버를 이용
박고! 박고! 박고!

준비된 타잔이 줄타기 하듯
노래를 부른다

아~아~아~아~아~
걸어만 주면, 끝~

타잔의 효율적인 구성

기본

- 언제 어디서나 걸어만 주면 되는 홀더
- 타자인 노래를 부르듯 줄타기(디자인) 하는 철망 (철망을 부착할 수 있는 나사 및 토양 포함)

선 택(상황과 개인의 성향에 따른 선택사항)

- 실내 수직정원을 가능케 하는 식물, 주로 관엽식물(선택)
- 물을 간단하게 공급할 수 있는 관수 호스(선택)
- 물을 시간에 맞게 자동 공급하는 아쿠아프로(선택)
- 실내용 물받이(선택)
- 실내용 물통(선택)
- 실내용 관수펌프(선택)
- 실내용 마감재(선택)

아름다운 수직정원
타잔을 부르는 소리

타잔! 물리의 왕자!
이제 간단한 수직정원의
새 이름입니다.

우리꽃영농조합법인
031-634-7990

서석지로 가는 길에 만나는 영양군 입암-



상서로운 돌들이 물에 잠겨 마치 신선세계를 온 듯한 "별서정원"

‘서석지, (瑞石池) 경북 영양’



글/사진 김 홍 렬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연구소(주)
 건축/조경/생태복원기사, 우리공예길라잡이
<http://blog.naver.com/hongdolry>

온 세상에 파스한 봄기운이 완전히 퍼지는 4월입니다. 이제는 초록빛을 내는 새싹도 하늘을 향해 기지개를 켜는 듯 피어나고, 곧 나비와 벌들이 분주한 모습을 볼 것 같습니다.

봄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들, 또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분들과 인근 정원을 찾아 꽃도 즐겨 보시길 시간을 권하고 싶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꽃을 직접 가꾸고 정원을 조성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음을 피부로 느껴집니다. 각자 자기가 꾸며보고 싶은 공간을 흙과 꽃을 가지고 직접 일구어 보는 가든링(gardening)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보람이 느껴지는 올 봄에는 꼭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4월에는 지난 호에 이어 조선시대 선비가 직접 자신의 철학과 삶의 이상향을 담고자 조성했던 별서정원 중에서 조선을 대표하는 서석지(瑞石池)를 소개합니다. 서석지는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담양 소재원, 보길도 부용동정원과 함께 '조선시대 3대 별서정원'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석문 정영방이 조성한 서석지 (경정에서 내려다 본 경관)

발을 디딜수 없을 정도로 연꽃과 돌로 가득한 정원을 조성한, 석문 정영방

조선 중기에 해당하는 1613년(광해군 5년), 경북 영양에 서석지를 조성한 석문 정영방은 어떤 인물일까요? 정영방은 퇴계 이황의 학통을 이어 받는 유학자이자 도가 사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605년(선조 38년) 그의 나이 28세에 성균관 진사에 합격하였으나 광해군이 즉위 후 조정이 시끄러워 지자 벼슬에 뜻을 버리고 자연이 수려한 영양으로 내려와 학문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전념했습니다. 그의 스승이 벼슬 자리를 권하기도 했으나 조정으로 나아가지 않고, 병자호란 후에는 집안의 모든 것을 큰 아들에게 맡기고 홀로 은거생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홀로 정원을 경영하면서 많은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서석지 사우단 한 칸에 마련된 주일재

서석지 정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석문 정영방이 홀로 학문에 집중하면서 기거할 곳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만든 곳이 서석지 주일재(主一齋)이고, 후학 양성을 하던 곳으로 만든 곳이 서석지의 경정(敬亭)입니다. 주일재와 경정이 둘러싸고 있는 정원 중심에는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뽕뽕히 돌을 배치하고 물을 채워 연꽃을 가득히 심어 놓았습니다. 도가적(道家的) 의미를 담은 곳이 연못이라면, 유학자들이 흠모하는 인품을 가진 네 가지 나무, 매란국죽(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과 꽃을 심은 사우단(四友壇)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석지 정원 가운데는 인공적으로 돌을 쌓아 직선형태 연못 외곽 형태 틀을 조성하고 그 안에 물을 채우고 90여개의 돌을 두었습니다. 제각기 다른 모양을 가진 돌에는 돌마다 저마다 각각의 이름을 따로 붙여 마치 신선들이 사는 도교적 세상과 같은 의미를 담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돌들은 외부에서 가져 온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하얀 빛깔을 띠는 돌을 활용하여 연못을 꾸민 것인입니다. 수 많은 돌들은 물속에 잠겨 있거나 수면 위로 떠 올라 있는 돌, 물 속에 잠겨 있는 돌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연못 경관이 연출되게 하고 있습니다.



후학 양성의 장소로 활용했던 서석지 경정

서석지 정원의 식재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석문 정영방이 정원을 직접 심었던 나무와 꽃은 문헌에 따르면 매화, 대나무, 소나무, 박태기나무, 구기자나무, 복숭아나무, 버드나무, 연꽃, 국화, 철쭉, 해당화, 접시꽃 등이라고 전해집니다. 현재 서석지 답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진입 공간에는 배롱나무, 살구나무, 향나무, 수수꽃다리, 만리화 등이 식재되어 있고, 지당(池塘)에는 연꽃이 심어져 있습니다. 주일재 앞의 사우단에는 국화, 소나무, 대나무, 매화나무가 있으며, 서석지 모퉁이의 행단에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담으로 둘러싸인 내부공간에 있으나 그 규모가 엄청 크고 마을숲 역할과 풍수적으로는 수구막이(안 좋은 기운을 막아주는 것)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석지 연못 속에 배치되어 있는 많은 돌



서석지 진입공간



주일재 앞 사우단에 심겨져 있는 매화, 소나무, 대나무, 국화

조선시대 대표적 '별서정원'인 영양 서석지 소개를 맺으며...

2015년 봄이 찾아온 4월에 소개한 '영양 서석지'는 가든인 2월호와 3월호에서 소개한 '담양 소재원', '보길도 부용동 정원'과는 또 다른 분위기와 형태를 가진 조선의 대표적 별서정원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물 속에 잠겨 있거나 물 위로 들어나 있는 괴이한 모양의 돌들이 연꽃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연못을 둘러보고 난 뒤 유학자의 성품을 담은 매화, 대나무, 소나무, 국화 이 네가지 식물을 심어 놓은 사우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서석지 내, 외부적으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은행나무가 있는 정영방의 서석지 정원을 가든인 독자 여러분들과 직접 답사를 듯한 느낌으로 정원 공간, 나무와 꽃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제한된 페이지 내에서 풍부한 옛 사료가 말해주는 컨텐츠(내용)와 사진으로 전통정원을 소개하려다 보니 독자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것 같은 생각합니다. 전통정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가서 보고, 나무와 꽃에서 나는 향기를 맡으며 정원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든인 독자들께서는 지면으로만 전통정원을 이해해야만 했던 아쉬움은 뒤로 하고, 가든인 매거진을 손에 끼고 직접 답사를 통해 그동안 쌓였던 아쉬움을 해소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호에서는 그동안 소개했던 조선시대 대표적 별서정원 사례에서 나타나는 식물들(나무, 꽃)과 공간 유형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정리하고, 오늘날 현대정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흥미롭게 활용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 있는지 소개하는 기회를 가져보려 합니다.



지당을 가득 매우고 있는 연꽃과 서석군(礫石群)



영양 서석지 외부 경관(은행나무)

Spring

COLOUR IN THE GARDEN



Munstead Wood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은 아마 산수유나무의 노란꽃일 것이다.

꽃양을 보면 마치 불꽃놀이할 때 하늘에서 '뱅'하면서 동그란 꽃을 만들어 낼 때와 같은 모양이다. 산수유꽃 다음으로 피는 꽃은 개나리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노란 수선화가 봄을 알리며 절정을 이루게 된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하나 둘 피어오르는 봄꽃들은 생명력으로 넘쳐난다. 노랑계 혹은 빨강계 혹은 핑크빛으로 수놓은 스프링컬러(Spring colour)의 매력에 눈을 돌려 보자.

오도
품목학교생태농업전공부 교사
일본 惠泉女學園園藝生活學科에서 화단설계 전공
전 여미지식물원, 천리포수목원 근무

구근식물

BULBACEOUS PLANT

벌과 나비를 유인하기 위한
구근 식물들의 노란 물결들

이른 봄, 산수유나무의 꽃을 시작으로 개나리와 영춘화 그리고 수선화 등의 노란 꽃들이 만발 한다. 봄이 되면 유난히 노란색 꽃이 많이 피는 이유는 꽃가루를 옮기는 벌과 나비를 유인하기 위함이다. 겨울이 되면 너무 춥기 때문에 곤충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고, 봄이 되어도 매우 둔하다. 식물들이 꽃을 피우는 이유는 바로 후손을 남기기 위한 방편으로 씨앗을 맺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곤충들의 눈에 잘 띄어야 하고, 곤충들의 눈에 제일 많이 반응 하는 색이 노란색이라고 한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노란색은 사람들 눈에도 밝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어, 추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의 스산함을 조용하고 포근하게 보듬어 주는 색이기도 하다. 오래 보아도, 많이 있어도 질리지 않는 노란색의 꽃들은 나의 정원으로도 들여와 보자.

무스카리 *Muscari latifolium* (Wisley Garden)수선화 *Narcissus* (Wisley Garden)

Lake Area (Savill Garden)



Vann Garden

생명력의 그린
VITALITY GREEN

숲정원의 생명력 있는 그린 컬러

숲정원(Woodland Garden)은 말 그대로 숲속에서 볼 수 있는 정원이다. 숲에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꽃도 있고, 물이 흐르는 주변에는 고사리와 물망초 그리고 앵초등이 어울리면서 그들만의 정원을 만든다. 아주 조금의 햇빛만 비춰도 싹을 틔우고, 아주 조금의 물만 있어도 마르지 않고 꽃을 피운다. 그 생명력 넘치는 숲정원은 봄이 되면 더욱 빛을 바란다.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지고 나면 숲속으로 햇빛이 들어가게 되고, 그 햇빛을 받으며 나뭇가지와 겨울을 나는 꽃들의 잎들이 더욱 튼튼해지는 것이다. 1년 중 완전하게 그린컬러의 맛을 선사하는 숲정원으로 발길을 옮겨 보자. 꽃보다 아름다운 그린 컬러의 세계가 펼쳐진다.

사과나무 *Malus Profusion* (Kew Garden)목련화 *Magnolia stellata* Susan (Kew Garden)

핑크색 식물

PINK
PLANT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피어 정원을 장식하는 핑크컬러

이른 봄, 산수유나무의 꽃을 시작으로 개나리와 영춘화 그리고 대부분의 초본성의 꽃들은 잎이 먼저 나고, 나중에 돼서야 꽃을 피운다. 하지만, 가을에 열매를 맺는 사과나 배, 그리고 벚꽃 등은 이른 봄에 꽃이 먼저 핀다. 최근에는 이들을 개량해서, 주로 꽃을 보기 위해 만들어 낸 정원용 화목들이 참 많다. 정원에는 꽃이 피는 나무와 초본이 함께 있어야 더욱 조화롭고 아름답다. 흰색과 분홍 그리고 빨강과 노랑에 이르기까지 파스텔컬러의 화사함과 고상함, 우아함을 모두 맛볼 수 있다.



암석정원과 들꽃정원, Wisley Garden

붓꽃 *Iris graminea* Iridaceae, Wisley Garden봄의 컬러
SPRING
COLOUR

봄 정원과 여름 정원을 이어주는 컬러들

노란색과 분홍색이 봄을 상징한다면 여름은 빨강과 주황 그리고 흰색과 파랑색일 것이다. 봄이 서서히 끝날 무렵이 되면, 여기저기서 붓꽃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노랑에서부터 보라색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색상들이 붓꽃으로 표현이 된다. 시원시원하게 뻗은 잎과 우아하고 귀품 있게 피어나는 붓꽃은 정원의 어떤 장소에서도 잘 어울리는 매력이 있다. 마르고 건조한 곳에서부터, 축축하고 그늘진 곳, 심지어 물속에서도 붓꽃은 잘 자란다. 봄과 여름 사이를 붓꽃으로 장식해 보자.

수직정원, 벽면녹화, 인공구조물 녹화

최고의 기술은 "세 번의 겨울"을 나봐야 안다.

수직정원의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진정한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은 수직정원의 대표적 선두주자는 단연 수직정원의 대명사인 벽화수이다. 수직정원 벽화수는 일반적인 벽면녹화용 제품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제품은 주로 흙을 담은 그릇과 같은 용기를 이용하여 벽면에 부착하게 된다. 그것은 식물이 자라는 밥그릇이 한정되어 진다는 것이다. 밥그릇이 크면 야 좋지만 벽면에 메달 수 있는 용기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런 제품은 혹독한 겨울을 날 수가 없다. 물과 양분의 유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수직정원의 기술력은 겨울을 세 번은 나뉘어 인정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수직정원 벽화수는 따로 그릇이 없다. 토양만이 있을 뿐이다. 원하는 벽면 전체가 썩지 않고 흘러내리지 않는 자연 상태의 토양과 같은 것이 식물의 뿌리를 한정하지 않고 또 수분의 고갈도 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심장인 서울의 하늘아래 실내가 아닌 건물 외부에 시공되어 3년을 넘긴 기술력은 오직 벽화수가 유일하다.

더욱이 벽화수는 3년이 아니라 이미 6번의 겨울을 넘기고서도 아주 아름다운 수직의 정원을 연출하고 있다는 데서 역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역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 특허를 받은 제품의 기술력이 헛되지 않는 것이다.

수직정원 벽화수
 **벽화수주식회사**
 전화. 031.634.7990





남산 1 호텔



인천교육청



인천남동구 노원주공아파트



해남 공영주차장



부산 남구 방오벽



몽림 아이원 아파트



경주원 저소벽화수



이천도로공사 사옥



중남대하이공원사무소



경북재활원센터



인천세계도시축전 전시장



인천 만원산 타널



인천세계도시축전 꽃탑



송파구 중앙분리대



문정구공원



세종로 중앙분리대



경북시립미술관



수원시 환경사업소



이천연구소

외부벽면 녹화의 유일한 "특허상품"

식물생육에 최적화된 토양의 물리력(특허 제 10-0807285호)
 벽화수는 펄라이트, 코코피트, 제올라이트, 피트모스 등 유, 무기물을 섞지 않는 섬유가 바인더 역할을 하고 100℃ 이상의 열로써 융착하여 완벽하게 소독이 되어 출하, 시공된다. 특허 식물의 뿌리가 가장 살기 좋다는 토양입자 50%, 공 기층 25%, 수분층 25%의 물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겨울에도 관수가 가능한 시스템(실용신안 20-2010-0003102번)
 벽화수의 관수기술에는 특별함이 있다. 일반적인 관수시스템은 주로 파이프 관 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방식을 쓰게 된 다. 매우 좋은 물 공급 시스템인 것은 맞 다. 그러나 경사가 진 곳에서는 물이 골 고루 떨어지지 않고 호스라인을 따라 흘 러 어느 특정한 부위에는 물이 과습하여 생육이 어렵고 또 다른 곳에서는 건조에 의해 죽게 되는 원인이 있다. 벽화수의 관수시스템은 방근 부직포가 관을 감싸고 있어 물이 한구멍에서 나오 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스미어 나오므로 토양에 골고루 공급되는 것이 특징 이며 겨울관수에 있어서도 관 안의 물이 부직포와 스펀지와 같은 벽화수에 의 해 모두 방출되기 때문에 겨울에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이 그 해답이다.

식물연구 전문회사의 기술력

벽화수를 개발한 우리꽃연구소는 이미 국내 식물 전문 기업으로 정평이 나있다. 식물의 생리와 생 태적 연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야생화를 개발, 실질적 세계로 열티를 받고 있는 기술력으로 개발되어 일반적인 기술력과는 식물의 입장에서 차별된다. 식물이 행복한 기술력, 플러그(어린 묘)를 꽂기만 하면 식 재가 완료되는 아주 간단한 시스템과 식물이 필 요로 할 때 공급되는 물과 양분 충분한 햇빛을 받 아 도시의 빌딩숲을 그린 숲으로 만들면 사람이 행복해 진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기술력 수직정원 벽화수의 꿈이다.



손관화교수 천안연암대학 화훼디자인개발
(가드닝 전공+플로리스트리 전공) <http://sohn.yonam.ac.kr>

꽃으로 아름다운 치유 마을 독일의 바트 뵐리스호펜(Bad Wörishofen)

숲을 이용한 치유도시 바트 뵐리스호펜

독일의 시골도시 바트 뵐리스호펜은 숲을 이용한 '치유도시'이다. 도시라고 하기엔 너무 작아 시골 마을이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뮌헨에서 서쪽으로 70km 정도 거리에 있는데 승무원이 체크해 주지 않았으면 중간에 시골기차로 갈아타지 못할 뻔했을 정도이다. 역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꽃으로 가득한 거리가 펼쳐져 있고 한적한 거리에는 노년층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쉬거나 걸어 다니고 있었다.

바트 뵐리스호펜에는 치료와 요양을 위해 하루에 3,000~4,000명, 연 9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하루 이상 숙박하는 사람도 11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물론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대부분이지만 40대나 50대도 적지 않다. 원래 목욕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시골마을이었는데 신부이자 의사인 세바스찬 크나이프(F.S. Kneipp, 1821~1897)가 자연치료 요법을 선보이면서 독일 최고의 치유도시로 발전했다. '크나이프 요법'이라 불리는 이 치료법은 자연 속에서 냉수욕과 냉수마찰 등을 이용해 심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독일에는 300개 정도의 치유 및 요양 기지가 있으며 치유와 요양 분야 종사자만 7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치유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치유 기지 허가요건은 까다로워 자동차 통행이 제한될 정도로 일정한 대기 환경 기준에 맞추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트레킹코스과 치유공원, 숙박시설을 갖춰야 하고 치유의사가 있어야 한다.

치유마을속 문화행사

바트 뵐리스호펜은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문화 행사를 제공하면서 치유산업의 중심지로 바뀌었다. 인구 14,000여명의 바트 뵐리스호펜에는 23곳의 크나이프 요법 시설이 운영되고 170여개의 호텔과 펜션이 운영되고 있다. 호텔 대부분이 치유시설과 자연요법치유사를 확보해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치유시설과 숙박시설에 근무하는 인원만 4,000여명에 달하고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까지 포함해 주민들의 수입 대부분이 치유산업에서 나온다. 치유업무를 총괄하는 쿠퍼하우스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공연도 제공해 1일 평균 7개, 연간 2,500개의 공연이 펼쳐진다고 한다.

치유산업의 이익은 주민의 수익

이 도시의 치유시설 대부분은 정부 소유지만 주민들도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치유산업의 이익은 주민들 수입과 직결되고 있다. 바트 뵐리스호펜은 방문객과 치유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들로부터 휴양세를 거둬 치유시설 확충 및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입이 연 250만유로(39억 원) 정도라고 한다. 바트 뵐리스호펜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공원처럼 잘 조성되어 이곳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심신이 편안해진다. 바트 뵐리스호펜에 머물고 있는 방문객들은 아침식사 전 호텔에서 제공하는 치유프로그램에 참가한다. 아침식사를 한 뒤에는 치유공원을 찾는다. 숲과 연결되어 나무가 울창한 치유공원에는 장미정원과 허브정원 등이 조성되어 있고 노르딕코스, 크나이프시설, 제염치유시설 등이 마련





정원의 아름다움으로 만든 치유마을의 모습

되어 있다. 방문객들은 공원을 산책하고 노르딕워킹을 하고 치유시설을 체험한다. 도시 외곽 숲에는 전체 길이가 200km에 달하는 노르딕워킹코스가 있는데 의사가 난이도를 고려해 코스를 구분해놓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도 인증 받은 6개 구간은 30km 정도이다. 도심 내 숲길인 크나이프 숲길도 인기 코스다. 도심을 걷는 8.4km 길이의 숲길에서 걸거나 자전거, 또는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방문객을 위한 치유공원 속의 정원 조성

바트 베리스호펜 거리 곳곳에는 시든 꽃을 갈아주는 가드너들을 볼 수 있고 호텔이나 식당, 상점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주택 정원에도 꽃이 가득하다. 또 공동묘지는 꽃밭으로 착각할 정도로 아름답다. 치유도시에는 허가 조건에 포함된 숲과 공원 외에도 꽃으로 아름다운 정원이나 꽃밭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마을 외곽을 걸다 보니 소를 키우는 건물 창틀에 윈도우 꽃박스가 달려 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다. 외양간에도 꽃을 걸어둔 것이다. 여름에도 비오는 날에는 추위 가을잠바를 꺼내 입을 정도로 선선한 독일 기후와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에도 공기 좋고 물 좋은 시골 마을을 꽃과 숲과 한방치유를 결합한 국제적인 치유마을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무엇이 정원을 재미있게 만들까? I. 정원의 색 컬러(Colour)



글. 사진 최지현 가든디자이너
가든스튜디오 알리움 대표
Writtle College, University of Essex MA garden design.

정원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점점 대중화 되고 있다.

작년에는 각종 정원디자인에 관한 이벤트, 전시가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열렸고 올해 역시 4월 제2회 코리아가든쇼를 비롯하여 전국의 플라워, 정원, 조경 박람회, 전시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원디자인이 소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을 즐기는 대중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정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탄하게 된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처럼 정원을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감상한다면 그 정원의 아름다움은 배가 될 것이다. 이번 달부터 소개하는 연재 코너 '무엇이 정원을 재미있게 만들까?'를 통해 매달 정원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를 하나씩 소개하려 한다.

첫 번째 시간으로 "정원의 색 colour"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한다.



따스한 색상(warm tone)으로 이루어진 화단, 시싱하스트, 영국



유사한 색상의 조화

중고등학생시절 미술시간에 봤던 이 색상환은 정원디자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컬러 팔레트이다. 이 색상환은 정원디자인의 플랜팅 디자인(planting design)을 계획할 때 요긴하게 쓰인다. 영국의 대표 가든 디자이너이자 플랜팅 디자인이라고 불리는 거트루트 지킬(Gertrude Jekyll, 1843-1932)과 윌리엄 로빈슨(William Robinson, 1838-1935)은 이 색상환의 색 중 반대편의 색, 즉 보색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양 옆의 있는 유사한 색의 조화를 이용하여 플랜팅디자인을 하였다. 워톤(따뜻한 색상)이라고 불리는 빨강, 주황, 노랑을 하나의 그룹으로 이용하고 쿨톤(차가운 색상)인 녹색, 파랑, 보라 등을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조화를 극대화 시켰다.

차가운 색상(cool tone)으로 이루어진 화단, 시싱허스트, 영국



2012 햄튼코트 팔라스 플라워쇼, 영국

보색의 조화

또 다른 색상 계획은 색상환의 반대편 색을 골라 이용하는 보색 대비 식재이다. 빨강 반대편의 녹색, 주황과 파랑, 노랑과 보라의 보색을 이용하여 두 가지 색 모두 눈에 잘 띄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최근 몇 년간 영국의 RHS 플라워쇼 (첼시 플라워쇼, 햄튼코트 팔라스 플라워쇼)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아래 2012년 햄튼코트 팔라스 플라워쇼에서 선보인 쇼 가든 중 하나는 노랑과 파랑의 색상환 반대편의 색을 이용한 정원을 선보였다. 노란색의 정원벽면과 파란톤의 식재와 잘 어울리는 보색 정원을 완성시켰다. 플랜팅 디자인만을 봤을 때에도 노란색의 톱풀과 (Achillea 'Coronation Gold') 보라의 라벤더, 꼬리풀, 버베나 등이 잘 어울려 있고, 흰 꽃으로 베이스 톤을 맞춰주었다.



2012 햄튼코트 팔라스 플라워쇼, 영국

또 다른 정원에서도 노랑, 파랑의 색으로 보색의 조화를 이루어냈다. 노랑색의 톱풀, 데일리리(Hemerocallis)와 꼬리풀, 델피늄 등을 조화가 서로의 색을 눈에 띄게 만들어 주며 서로를 돋보이게 한다.



세계적 명소가 된 일링정원의 시싱허스트 화이트가든, 영국 _ 흰색의 정원

단색의 아름다움

한가지의 색상만으로도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 있다. 그 정원을 대표하는 색으로 디자인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싱허스트 정원(Sissinghurst, 영국)의 화이트 가든은 그 정원을 대표로 하며 화이트 정원의 절정시기인 5~6월에는 작은 그 정원이 인산인해를 이룬다. 화이트 가든이라고 해서 흰색의 꽃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색의(silver) 잎을 가진 식물과 함께 식재하여 다채로움을 더했다. 오나멘털 페어트리(배나무 일종)라고 불리는 *Pyrus salicifolia* 'Pendula' 나무를 중심으로 식물은 램스이어(은색의 잎)와 우단동자(흰색꽃) 등이 심겨져 있다. 단색을 이용하는 정원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정원이 화이트 가든이지만 흰색 외의 단색을 이용해서도 아름다운 플랜팅 디자인이 가능하다. 2012 햄튼코트 팔라스 플라워쇼에서 선보인 정원(아래사진)은 주황색을 이용하였다. 전체적인 톤은 주황이지만 채도, 명도, 꽃의 모양을 달리하여 전체적으로는 통일된 색을 갖지만 그 내용은 다양하게 채웠다.

우리나라에서도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 색상 테마의 정원을 충분히 시도 할 수 있다. 필자도 2014년 코리아가든쇼에서 화이트 가든을 선보였다. 이때 사용했던 식물은 무늬억새, 무늬 호스타, 폭스글로브, 흰수국, 사스타 데이지, 무늬 아이비 등 흰색의 꽃과, 무늬 종 식물을 이용하여 식재 하였다. 한가지 색만을 이용하여 단조로운 듯 하지만 다음 연재에서 진행할 식물의 질감과 모양, 리듬감을 이용한다면 단색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도 지루하지 않은 정원을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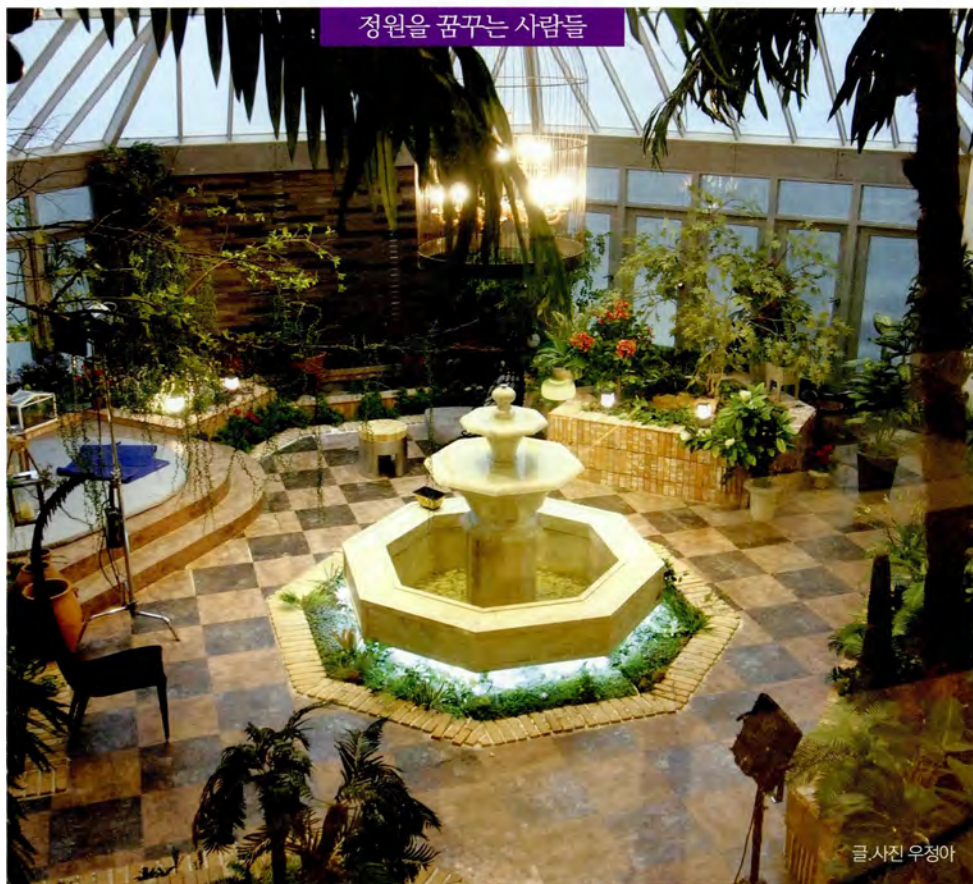
우리 집 정원을 만들 때나 큰 화분에 모아 심기를 할 때에 색상 테마를 잡아 식재를 해 준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깔끔하고 통일된 정원을 감상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다가오는 올 봄부터 화분에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 색 테마의 정원을 시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2012 햄튼코트 팔라스 플라워쇼, 영국 _ 오렌지 색의 정원



2014 코리아 가든쇼



SBS 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의 정원 방송연출 가든디자이너 김동숙



탄현 SBS 드라마제작센터의 세트장에 설치된

'하이드 지킬 나'의 정원을 방문하여 '김동숙 방송 연출 가든디자이너'의
정원 조성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드라마 연출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 정원과
드라마 연출의 뒷이야기에 대해 들어봤다.



100여명의 세트장 테마정원

세트장 내에 100여명에 조성되어 정원의 테마는 명상의 실내 온실 정원이다. 야자수, 선인장, 목련, 벤자민 고무나무, 대엽 홍콩, 관죽, 아이비, 스킨덱서스, 피토니아, 맥문동, 무스카리, 물망초, 풍란, 알록가시아, 팔손이, 디펜바키아, 백정화, 알레카야자, 네프로네페스, 튜립, 제라늄, 크로톤, 허브류 등 실내에서 잘 자라는 식물로 구성되어 있다. 정원은 각각의 화단으로 구분되어 있고, 화단의 높이는 조금씩 차이를 주어 주 통로에서 모든 화단이 눈 안에 들어오게 구성되어 있다. 주정원은 높은 야자수와 선인장을 이용해 실내정원의 특성을 살리고, 그 밑부분으로 관죽과 네프로네페스 등 고사리류를 이용해 깊이감을 주어 웅장함을 강조했다. 부정원은 각기 생활환경이 비슷한 식물들을 군락으로 조성하고, 곳곳에 돌과 소품을 두어 소소한 재미가 있게 구성되어 있다. 정원과 건물의 벽이 만나는 공간에는 아이비를 벽으로 붙여서, 식물이 식재된 지 오래된 느낌을 주어 정원이 더욱 자연스럽다. 명상의 공간 옆쪽으로는 큰 고목에 녹영을 덩굴처럼 활용해 늘어뜨려 신비스러움이 느껴지게 했고, 명상의 공간과 조화를 이루게 구성되어 있으며, 통로 쪽으로 놓여진 의자와 테이블들은 쉬면서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지게 한다. 정원의 중앙 천장으로는 대형 세장을 활용해 만든 조명이 있고, 그 아래로는 팔각의 유럽풍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분수대 밑으로 간접 조명을 넣어 분수대와 함께 밑으로 조성된 화단의 식물도 돋보이게 한다. 화단에서 조명의 쓰임새를 다양화하여 식물들이 빛과 만나서 만드는 풍경을 따뜻하게 한 연출도 흥미롭다.





방송연출 가드너 역할이란?

김동숙 가드너 디자이너가 식물과 함께 하는 직업을 갖게 된 것에는 부친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데, 어린 시절 마당 가득 꽃들을 키우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식물을 알고 스스로없이 대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평생직업으로 즐기게 되었다고 한다.

1991년 SBS가 창사와 함께 TV방송 연출 플로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영역을 넓혀 지금의 방송 연출 가드너 디자이너가 되었다고 한다. 방송국의 일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예술작업으로 매번 일반적인 것과는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접근해야 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 성취감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한다. 주어진 시간 안에 조성해야 하고, 많은 인원이 촬영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촬영 중간중간 보수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고, 보수하는 시간도 연기자들이 쉬는 사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 순발력, 임기응변의 능력이 꼭 필요 하다고 한다.

“드라마 <사랑과 야망>의 높이 8m 숲, 드라마 <주군의 태양>의 장미정원,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주인공 주택의 정원 등 많은 연출을 했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강원도에서 연출 도중에 파발을 만들어 달라고 갑자기 요구해, 서울로 올라와 가락시장에서 파를 사서 신고 다시 가서 강원도에서 연출하고, 제주도에서는 작은 섬의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 섬 전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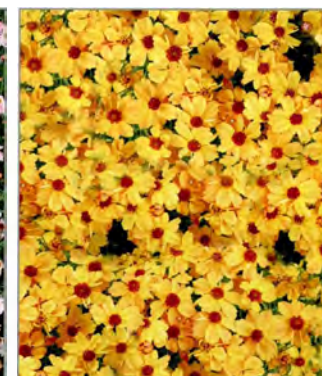
유채 밭으로 연출했으며, 북한에서는 꽃을 구하기 힘들어 천으로 꽃을 연출하면서도 남들이 해보지 못하는 체험을 통한 다른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선구자라 스스로 생각하므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다 보는 관점에 따라 쓰임새는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은 아름다운 정원을 탄생 시키는 소재가 될 수 있음을 상상하고 실천한다면, 자기만의 개성과 색으로 만들어지는 정원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드림 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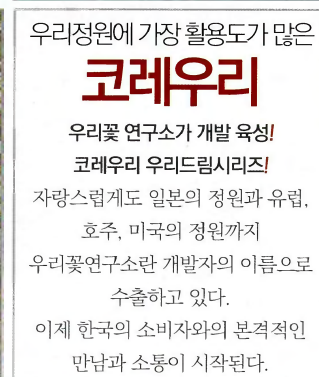
우리드림 핑크



우리드림 옐로우



우리드림 화이트



우리드림 오렌지

우리정원에 가장 활용도가 많은

코레우리

우리꽃 연구소가 개발 육성!

코레우리 우리드림시리즈!

차량스럽게도 일본의 정원과 유럽,

호주, 미국의 정원까지

우리꽃연구소란 개발자의 이름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소비자와의 본격적인
만남과 소통이 시작된다.

우리꽃영농조합법인
전화. 031.634.7990



팅커벨 레드



팅커벨 핑크



팅커벨 퍼플



김성숙 가드너의
뉴욕 속 정원문화 엿보기 II

캐롤린 정원 방문기

지난 호에 비교한다면, 아주 소박하고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의 정원으로 초등학교 교사인 캐롤린과 회사원인 앨리엇 부부의 정원은 뉴욕시 플러싱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캐롤린의 정원"은 맨해튼 도심의 혼잡함을 피해 20년 전 한적한 교외로 이사를 했다. 집을 포함한 평수는 300평, 이 중에 약 3분의 2를 정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뉴욕식물원의 정원사, 원예교육가로 활동 중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졸업, 재미교포

"안녕하세요. 마이클 씨, 뽕나무 전정을 하시네요. 저번에 주신 뽕나무 열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퇴근길 마주친 앞마당에서 몽실몽실 구슬땀을 흘리며 정원가꾸기를 하고 있는 이웃주민, 마이클에게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며 하는 말이다. 옆쪽에 화려한 꽃들로만 채워진 화단에는 정성들여 나란히 세워놓은 큰 돌덩이들이 화단 경계 역할을 제대로 해 내고 있었다. "새로 구입한 거베라 데이지, 제라늄, 페튜니아예요. 색깔 좀 보세요. 카야, 예술이야. 예술!" 손수 가꾼 정원을 보여주며 부듯하게 자랑을 늘어놓는 이웃 아저씨가 귀엽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앞마당과 뒷마당의 정원

집 앞의 겹벚꽃나무는 수령이 40년은 족히 넘어 보였다. "벚꽃 중 가장 늦게 피는 겹벚꽃 나무인데요. 4월 말 경에 꽃을 피워요. 연분홍빛 꽃이 활짝 필때면 가족들과 함께 집앞에 나가 사진을 찍으며 꽃을 감상합니다. 꽃잎이 흩날리는 날은 창가에 앉아 차 한잔 마시면서 감상에 젖기도 하지요. 앞마당과 뒷마당을 구분을 짓는 낮은 울타리의 양쪽으로 두개의 옆문중 오른쪽에는 사계절 내내 다른 모습을 뽐내는 화단이에요. 이 조그만한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느낌을 주는 정원의 모습을 그리며 봄에는 꽃잔디, 히아신스, 수선화, 조팝나무가 조화를 이루고, 여름에는 노오란, 하얀 백합이 밝은 주황색의 원추리와 함께 꽃을 피우지요. 가을에는 파스텔 톤의 국화와 구절초가 환상적이에요." 왼쪽 옆문으로 들어간 곳은 조그만한 공간을 활용한 허브 정원으로 동백나무와 모란, 로즈메리, 민트, 세이지, 파슬리, 베이즐, 타임 등이 심어져 있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무화과 나무도 보였다. "가을이면 무화과 열매를 따서 친구들에게 나눠줘요." 2가지 다른 종류의 클레메티스가 어울려 지면서 담장을 덮는 모습도 아름답다. 무화과나무 아래로 이른 봄에 꽃을 피우고, 긴 낮잠을 잘라고 잎사귀가 노랗게 변한 금낭화와 생명감 넘치는 초록잎사귀 위로 시원시원한 흰색 줄무늬가 겹쳐진 무늬 동글레가 보였다. 독일 가문비 쌍둥이 나무 옆을 지나면 다시 확 트인 잔디밭이 보이고 한쪽으로 길게 늘어선 정원이 보인다.

미국 가정집 정원 앞,뒤마당의 특색

미국 가정집 정원의 특징이라면 집 앞마당은 주로 보여주기 용이다. 깔끔하게 단정한 면접생들의 모습이랄까? 첫인상이 중요한 면접생들 처럼, 집을 팔려고 할때 제일 먼저 손보는 일이 집 앞마당의 정원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뒷마당은 한 가족의 오락과 힐링 장소로서 효율적 이용가치와 뒷마당은 사생활의 보호로 울타리로 이웃집과 경계를 두었다. 거실과 부엌은 데크로 정원과 연결되어 바로 옆에 자라는 블랙베리 나무는 탐스러운 열매와 꽃들로 뒤덮여있어 부엌에서 바로 나와 바로 따 먹을 수있다. 싱싱한 과일이 바로 코 앞에, 달콤한 낮잠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뒤로 쪽쪽 늘어지는 의자, 그리고 햇볕, 여름에 그 진가를 발하는 바베큐시설이 한쪽에 마련돼 있다. 귀여운 모습의 하늘색 정원도구 창고도 보이고 그 옆에 아내에게 생일 선물로 마련한 붓틀레이는 달콤한 꽃향기에 호랑나비들이 많이 찾아와 호랑나비를 좋아하는 아내에게 좋은 생일선물로 기억되는 정원의 추억이 담긴 곳이다. 바로 옆으로 경계용 측백나무에 가려진 퇴비장도 마련되어 있었다.



캐롤린, 추억의 정원

캐롤린의 정원의 추억은 “제가 아마 여섯살 때쯤일 거예요. 할아버지 집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토마토, 옥수수, 베이즐, 오레가노, 파프리카, 포도, 무화과 열매, 애호박 등을 심고 가꾸셨지요. 할아버지를 도와 오색찬란한 채소와 과일을 따때 너무 기뻐요. 먹을 것을 식물에게서 얻는다는게 너무 신기했구요. 여름철 토마토, 오이, 베이즐, 애호박, 파프리카를 따서 한가득 바구니에 담아서 할머니에게 자랑스럽게 가져다 바치면 할머니는 그 채소들로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셨죠. 토마토 수확이 많은 날에는 할머니가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병에 담아 지하실에 놔두고 파스타를 만들때마다 두고 두고 사용하셨던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는 아침일찍 일어나셔서 채소정원가꾸기를 하셨는데, 정원에는 두꺼비, 나비, 무당벌레들이 많았던걸로 기억해요. 토끼, 새와 다람쥐 같은 야생동물이 찾아왔어요. 최고 중의 최고! 그 아름다운 추억 덕분에 여름철에는 꼭 베이즐 모종을 사서 키워요. 그때마다 할아버지를 떠올리면서요. 봄에 꽃들이 올라올때 꽃들을 보면 너무 행복하고 제게 희망을 안겨줘요. 냉혹하고 으스스한 추운 겨울을 견대내고 식물이 자라 꽃을 피고 또 꽃을 피운다는게 너무 멋지지 않아요? 꽃을 키우면서 ‘희망’을 느끼는것도 이 때문일거예요. 꽃들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예뻐보이게 하고 유쾌하게 하는 마술을 가진것 같아요. 정원에 있는 꽃을 화병으로 옮겨오는 일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계절별로 새로운 꽃들을 보는데서 잔잔한 행복을 얻어요.” 미국에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신선한 꽃다발을 5불에서 10불 정도에 살수 있다. 장보러 갔다가 꽃을 사서 식탁에 놓는 일은 꽃을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일상화 된 모습이다. 소박한 캐롤린의 정원을 둘러보며 다양한 식물로 꾸민 어여쁜 정원, 정원용 전등, 목도 축이고 목욕도 하고 갈 수 있는 새들만을 위한 욕조, 정원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정원용창고, 야외식탁과 함께 있는 바베큐 시설, 퇴비장 등 있을 건 있고 없을 건 없는 확실히 실용적인 정원임을 실감했다. 이런 정원들은 미국의 교외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 만큼 일반화 되어있다. 머지않아 한국에도 가드닝이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여가활동으로 발전하리라 본다.

- 뉴욕에서 김성숙 정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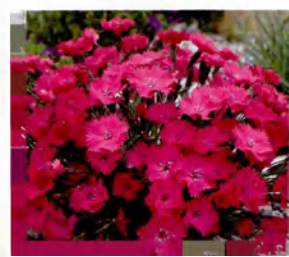
우리꽃 품종 독립!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꽃연구소 다양한 '신품종 개발'로 해외 로열티 수출! 유럽, 미국, 호주, 일본 등 12개 품종, 더많은 품종 대기중!

우리나라는 로열티 수입국이다. 대한민국이 독립한지도 어언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행복지수를 가늠하는 화훼시장에 있어 일본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이 우리나라의 재배품종을 석권하다시피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모두 로열티를 주고 들어와 재배되는 것이다.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에 종자 주권이 있을까? 아니 종자 주권국임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을까? 미안하지만 다른 품목은 몰라도 화훼품종만큼은 우리가 품종 주권국이라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우리가 도로가나 정원의 가장 좋은 자리,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야생화(조경, 정원용 다년생) 품종은 해외 수입품종임을 인정하면 오히려 더 쉽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토종 화훼 기업이 아무도 알아 주지 않아

도 꽃스럽게 품종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을 부단히 두드린 결과 화훼산업의 본 고장인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과 남반부의 호주,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까지 그 품종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실질적인 로열티를 수출하고 있어 진정한 품종독립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우리씨드그룹의 모기업인 우리꽃연구소는 2000년 창업 이래 꾸준히 품종개발을 위하여 매출액의 10%이상을 품종개발과 관련한 연구비에 투자하고 네덜란드, 독일, 일본, 미국 등 유수의 박람회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품종을 알린 결과 이제 해외 유명한 품종개발 회사가 그 명성을 알아 볼정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품종 관리 회사인 플랜טיפ사(네)와의 계약은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우리꽃연구소
URISEED LAB

전화. 031.634.7990

GARDEN REVOLUTION

정원 디자인의 혁명

우리나라에 가장 많고 흔한 나무가 소나무다. 그리고 2011년 한국갤럽 양케이트 조사에 좋아하는 나무 순위를 뽑은데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 하였다.

나무 선호도조사

1위	소나무	43.8%
2위	은행나무	4.4%
3위	단풍나무	3.8%

글/사진 정수진대표
정수조경

서울시 강남구 율현동 146-10 tel. 02)2226-7515
www.jungsoowon.com



전세계 돌아다녀보아도 소나무 없는 나라도 드물 정도로 소나무 있거나 나무 형틀은 다양하지만 열대, 한대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한가지 분명한것은 기후가 평범하고 향기 좋은 곳의 소나무는 별 볼품이 없다. 내가 본 소나무중 가장 볼품 없는 곳은 하와이였다. 일본 소나무는 온난다습한 기후 성격에 잘자라서인지 육중미가 있지 한국 소나무와는 사뭇 다르다. 곡선이나 피부결질 모양새가 한국과는 다르다. 남한에서도 지역마다 소나무의 모양이 다르다. 경기도, 전라도 지역의 소나무는 토질이 상대적으로 좋아서인지 아름다운 곡선이나 피부를 갖은 나무를 발견하기 힘들다. 소나무는 기본적으로 어느 곳에서든 자라는 나무지만 그 환경이 척박할수록 살기 위한 투쟁 때문인지 각가지 형태로 자태 내지는 피복의 형태도 바꾸어 가면서 적응해 나간다. 분재 소재로 가장 많이 애용되는 나무가 소나무이다. 한국 충남 분재 지부장을 하고 계시는 분재대가께서 하신 말씀이 "일본의 분재 소재 중 귀한 소재는 한국서 대량 건너갔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생각하는 정원" 분재 정원에 장쩌민, 후진타오 중국 수석들이 다녀갈 정도로 한국분재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한국 소나무 소재가 탁월하다는 의미다.



프로포즈

나무원산지: 포항/수 령:약400년/길 이:11m/높 이:5m/폭:5m



불국사 소나무와돌 사진

나무원산지: 울산, 경주/수 령:약300년/길 이:12m/높 이:4m/폭:6m

나는 분재에대한 관심도 많지만 큰 나무를 좋아하다 보니 한국소나무 대형 분재형 나무에 빠져들기 시작하지 약 5년이 되었다. 예술적인 아름다운 소나무를 어떻게하면 더 아름답게 표현할수 있을가 하고 미학적 관점에서 실제 다양한 방법으로 배치하여 보기 시작하였다. 분재도 나무와 돌로 좁은 공간에 이루어 지지만 그것은 상상력과 연출방법에서 비롯된다. 나의 연출력은 세계 도처에 평생 다니며 돌아본 자연과 미술관에서 각인된 영감에서 비롯된다고 믿어진다. 처음 작품은 키 4미터짜리 소나무 2주와 그 중간에 현대미술 조각품을 넣어서 "프로포즈"라는 제목을 붙여 주었다. 한남자가 무릎 꿇고 프로포즈하고 한 여자가 살짝 고개숙여 받아주는 모습이다. 한국 소나무의 예술성을 서양 조각과 융합해 보는것이다.



돌과 붓꽃 사진

원산지:경주 길 이:4m 높 이:3m

다음 이어진 대작은 완성되기까지 2년이 소요되었다. 첫 나무와 오른쪽 돌은 어려움 없이 연출되었으나 키가 큰 나무 안에 공간을 매워줄 나무를 전국을 찾아 헤메다가 경주에 있는 소나무 농장에서 발견하고는 삽입하여 넣었더니 아주 연출이 잘 나왔다. 큰 나무의 피복 색은 흰색, 작은 나무 피복 색은 흑색이라 제목을 "Black&White"로 지어 주었다. 이 작품은 저번 조명에 최상의 모습을 자랑한다.



Black&White 사진

나무원산지: 포항/수 령:약400년/높 이:8m

나는 이제 한국의 아름다운 나무와 돌을 정원의 큰 골격을 갖춰놓고 초화류도 '우리꽃'에서 준비한 외국종 초화류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의 독창적 품종을 개발한 아름답고 관리 편한 식재로 단장함으로써 새로운 정원 세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원세계에도 요즘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정원 디자이너들이 많이 유입되고있고 이 세계를 전부 아우르는 Landscape concept designer로써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감각으로 현시대에 잘 맞는 동서 융합의 아름답고 한국만이 갖을수 있는 정원을 꾸밀수 있다.

의미있는 소나무 숫자를 줄이고 한두주만 멋있는 연출하여 남은 공간은 아름다운 동서양꽃 식재를 하여 가족이 같이 즐길수 있는 아름다운 한국 특유의 정원을 꾸미는것이 신시대 생활을 잘 읽어내는 정원이라고 믿는다.



부채춤과 장미 사진

나무원산지: 포항/수 령:약150년/규 모:27평

다음에 탄생한 소나무 군락으로 이루어진 "부채춤"이라는 소나무 약20주로 형성된 모습은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나무들을 의미 있는 공간 연출을 하게 되었다. 이 군락은 여기에 과감한 모험을 해보았다.



mini series 사진



강원도 소나무와 돌

나무원산지: 강원도 고성/수 령:약350년/규 모:27평/길 이:5m/높 이:4m/폭:3.5m

정원으로의 여행



정원의 구성요소

정원의 구성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것들의 기능과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내 정원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정원이 어떤 스타일인지 구상해 볼 수 있다.



글 사진 가든디자이너 서수현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꽃과 나무를 심고 자연을 즐기는 장소가 정원이다. 오래 전부터 자연을 동경해서 만든 곳이기도 하며 부와 권력을 나타내기 위한 장소로도 만들어져 왔다. 이탈리아는 물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빌라 에스테와 같이 구릉지의 단을 이용하여 만든 계단식 정원이 화려하게 만들어졌고 프랑스는 평지인 땅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 카페트 무늬와 같이 화려한 평면 기하학적 모양의 화단을 꾸며 정원을 디자인 하였다. 각 나라별로 자신들의 환경에 맞게 정원의 스타일을 발전시켜왔다. 서로 다른 스타일의 정원이라도 공통되게 정원을 디자인하는데 들어가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어떤 정원이라도 식물만으로 정원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구성 요소들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정원의 구성요소란

정원의 구성요소를 크게 둘로 나누자면 부드러운 느낌의 성질을 가진 것과 딱딱한 느낌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드러운 물성은 식물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딱딱한 물성은 무엇일까? 바로 돌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벤치, 식물을 심는 화단, 정원의 입구를 장식하고 있는 대문 그리고 온실이나 정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등을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정원양식이 두드러지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비교 해 보자.



Wallington garden Gate 정원으로 들어가는 메인게이트

어떤 스타일의 정원을 만들지는 그 정원의 소유주나 주로 이용하는 사람의 성향에 맞춰 결정이 된다. 예전 이탈리아 정원을 보면 막강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술과 문화에 투자를 하듯이 정원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르네상스로 인해 발달했던 예술 작품을 전시회에서 둘러보듯 이탈리아 정원은 정원 전체가 예술 품이다.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장식품들과 조각상 그리고 연못이나 화단 경계석들을 보면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여신의 모습을 한 동상이 서있는 연못이라든지 포세이돈과 같이 그리스의 신들의 모습 등 여러가지 다양한 작품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그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담이나 울타리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나 건물과의 경계를 만드는 출입문 등도 여러가지 문향과 독특한 모습으로 표현을 했다.



상부 물의 흐름과 중앙분수의 요소를 정원분수에 이용



Wallington garden 소정원 입구의 모습



영국의 작은 프랑스 Waddesdon Manor - 프랑스풍의 건축물과 정원



르네상스 시대 화려한 이탈리아 정원을 부러워 했던 프랑스는 자신들의 환경에 맞는 정원을 고심하던 중 르노트르에 의해 화려한 화단이 디자인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빼놓지 않고 관광을 하는 베르사이유 궁전의 정원이 바로 그의 작품이다. 광대한 대지위에 만들어진 화려한 정원은 왕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프랑스의 평면기하학적 화단은 왕궁이나 웅장하고 화려한 별장의 앞마당을 수놓았다. 조각물을 이용하기 보다는 식물의 배치나 색의 대조를 통하여 부각시켰다. 이는 이탈리아 정원보다 정형화 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이탈리아 정원은 구릉지의 단의 차이와 산에서부터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분수를 만들었지만 프랑스는 호수와도 같이 넓은 연못이나 화려한 조각물들이 전시된 분수를 만들었다.



(평지를 이용해 만든 넓은 연못과 살아움직이듯이 연못 안을 장식하고 있는 조각물들)

실내정원의 Craft

재활용 가든 - 나무의자 재활용 가드닝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
KHDA(한국원에
디자인협회) 회원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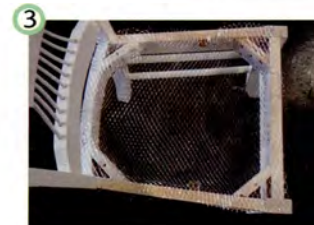
버려지는 가구류는 재활용 가드닝을 하기에 좋은 소재이다. 특히, 의자는 별도의 손질 없이 안정감 없애고, 그 자리에 다육식물을 식재하면 허전한 공간에 좋은 조형물로 자리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의자의 피스를 제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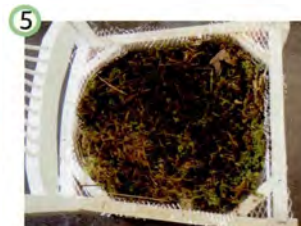
인장을 제거한다.



치킨와이어를 의자에 맞게 자르고, 식재 할 부분은 밑으로 여유를 준다



치킨와이어의 가장 자리를 못으로 고정시킨다.



흙이 밑으로 흐르지 않도록 산이끼를 깔아준다



식물을 식재 할 공간 밑으로 흙을 넣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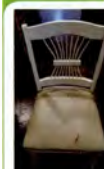
다육식물을 큰 것부터 식재한다



식물 사이에 흙으로 채우고 마사토를 덮어준 후 현무암으로 장식한다.



Material



의자



치킨와이어



상토



마사토



산이끼



황금성



녹영(광나)



옴투사



레티지아



성미민



다비드



현무암



봄의 찬가

(讚歌)

글. 사진
천리포수목원(공익재단법인)
교육팀 남수환 차장



선달나무 *Cornus florida Alba Plena*



복수초, 설강화, 바람꽃.....
작게, 여리게, 은은하게 시작된
봄은 꽃샘추위, 늦서리,
차가운 봄비를 맞으며
몇 고비를 넘기더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계절이 된다.



선달나무 *Cornus florida Alba Plena*



선달나무 *Cornus florida Alba Plena*



변산바람꽃 *Eranthis byunsanensis*



목련화 *Magnolia Sayana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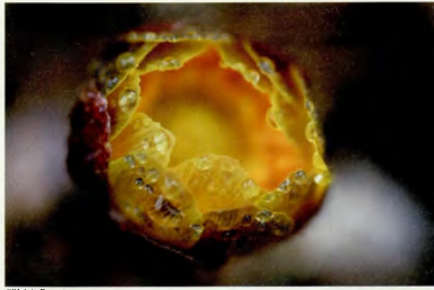
그런 인고의 시간을 이겨낸 세상은 온통 봄빛이다.
물에서는 날카로운 잎으로 수면을 뚫는 붓꽃이
땅에는 겨우내 비어있던 화단을 가득 채운
아이보리빛 수선화가 하늘에는 잎도 나지 않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꽃을 달고 있는
목련이 그렇다.



복숭아꽃 *Prunus pers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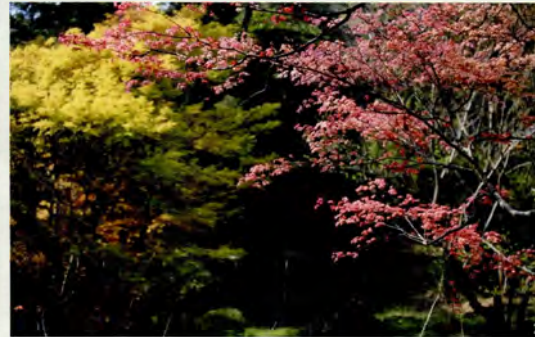
목련화 *Magnolia Picture*

개복수초 *Adonis ramosa*

때로는 아직 깨지 않은 생명을 위해
달콤하고 촉촉한 봄비가 내린다.
봄비를 맞자 꽃눈에서는 분홍빛, 레몬빛 꽃이,
잎눈에서는 붉은빛, 연꽃빛 잎이 고개를 내민다.
이미 한창인 동백과 벚꽃은
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걸까?
밤새 내린 봄비에 꽃잎이, 꽃송이가
빛길 따라 흘러 있다.



Magnolia Ann



밀러가든 봄풍경



밀러가든 봄풍경



밀러가든 봄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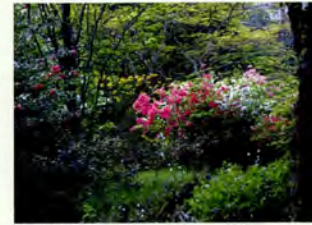


밀러가든 봄풍경

해마다 찾아오는 계절이지만
맞이할 때마다 가슴을 설레게 하는
봄은 아름다움이다.
새끼손톱만큼 작은 꽃을 보고도
감동케 하는
봄은 경이로움이다.
언제 시작인지 언제가 끝인지
알 수 없지만 항상 기다림의 계절인
봄은 환상이다.



밀러가든 봄풍경



밀러가든 봄풍경



밀러가든 봄풍경



밀러가든 봄풍경



밀러가든 봄풍경



밀러가든 봄풍경



밀러가든 봄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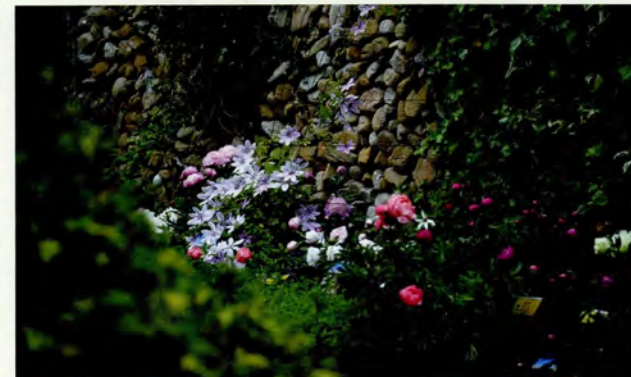
밀러가든 봄풍경



밀러가든 봄풍경



밀러가든 봄풍경



밀러가든 봄풍경

설강화 *Galanthus nivalis*



정원의 식물을 섬세히 그려가는 코스

2015년 제4기 식물세밀화가 양성과정
(Botanical Art Course)

- 대상 : 식물과 자연을 사랑하는 일반 성인
- 교육기간 : 2015년 4월 6일(월) ~ 7월 13일(월) - 매월 격 주 월, 화요일 19:00~22:00 / 총 12강 / 36시간
※일정조정에 따른 일부교육시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모집인원 : 20명 (최소 14명 이상 개설)
- 접수기간 : 2015년 3월 10일(월) ~ 3월 31일(월)까지
- 접수방법 : 선착순 모집으로 참가신청서 (첨부) 작성 후 메일 (rainy85@naver.com) 또는 FAX(041-672-9984)로 접수
- 교육장소 : (재)천리포수목원 생태교육관 소강의실
- 수강료 : 수목원 후원회원 ₩480,000 / 일반 ₩500,000 실습재료비와 졸업전시액자비 자비부담 원칙

※수강료 환불기준
- 교육시작 전일까지 취소시 : 전액 환불 - 교육시작 1주일 이내 취소시 : 50% 공제 후 환불 - 교육시작 1주일 이후에는 환불하지 않음

8. 교육내용

강좌	날짜	주 제	표현기법	준비물	비 고
1강	4. 6	오리엔테이션 선으로그리기 -식물 줄기와 잎그리기	라인/드로잉 연필	샤프펜슬 / A4드로잉북	항상 돋보기 지참
2강	4. 7	선으로 그리기 -꽃 그리기	라인/드로잉 연필	샤프펜슬 / A4드로잉북	
3강	4.20	명암으로 그리기 -명암법 익히기	연필화	A4스케치북 / 2B,HB,2H연필	
4강	4.21	명암으로 그리기 -식물 명암으로 그리기	연필화	A4스케치북 / 2B,HB,2H연필	졸업작1
5강	5. 4	펜으로 그리기 -펜 이해 기법	펜화	하이테크펜 / A4스케치북	
6강	5.18	간단 식물화 그리기 -펜 식물 일러스트	펜화	펜 색연필 / A4스케치북	졸업작2
7강	5.19	색연필로 그리기 -색연필의 이해	색연필화	색연필 / A4스케치북	
8강	6. 1	색연필로 그리기 -잎, 꽃 그리기	색연필화	색연필 / A4스케치북	졸업작3
9강	6. 2	색연필로 그리기 -식물 그리기	색연필화	색연필 / A3코트지	졸업작 중간제출
10강	6.15	졸업작품 그리기 -구성, 스케치	색연필화	색연필 / A3코트지	졸업작4
11강	6.29	졸업작품 그리기 -채색하기	색연필화	색연필 / A3코트지	
12강	7.13	졸업작품 그리기 -완성하기	색연필화	색연필 / A3코트지	졸업작품 제출
수료	7.27	수료식 -졸업작품전 개막식	졸업전 전시기간	7.27 ~ 8. 30	

잉글랜드 중서부 시골 마을 "코츠월즈" (England Cotswolds)

물고기 뛰고 솔개 나니 위아래가 한 이치
무심히 미소를 머금고 내 자리를 돌아보니
魚躍鳶飛上下同
等閒一笑看身世

이러한 경계는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네
해질 녘 숲 속에 홀로 서 있네
這般非色亦非空
獨立斜陽萬木中
『음곡전서(栗谷全書)』 - 중용 12장



'cots'는 시골집을 의미하며, 'wold'는 경사진 언덕을 의미하는 합성어로 명명한 Cotswolds 코츠월즈 마을을 걷는 느낌은 예전 한국의 정갈한 시골에서 만나는 초가집 지붕과 푸근함을 주는 시골마을에서 한국의 안동 마을을 방문하던 기억도 스쳐간다. 영국의 중서부의 지역은 마을에서 마을이 정원으로 이어지듯 유채꽃 밭과 시골길을 하루 종일 운전하며 다녀도 자연의 풍광이 계속된 정원의 마을로 이어져간다. 한국의 정원에서 한국인의 정취를 발견하듯 이곳 지역에서도 옥스포드대학의 정원들,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생가가 있는 Stratford-upon-Avon 등과 정원이 출지어 이어진 13세기의 중세마을의 특색도 포함된 곳이다. 영국의 지질은 석회암 구릉지대로 이루어진 고원으로 농경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 가축이나 양을 기르기에 자연조건이 좋은 곳이며 중세부터 시작된 양모산업이 활발한 곳으로 유명하다.

서양의 정원마을을 바라보며 중용의 글귀가 떠오르는 것은 아름다운 최고의 정원마을에서 최고도 최하도 선을 그을 수 없다. 좋은 정원의 방문길에 서면 자연이 교사가 되어 자연의 이치를 깨우쳐 주는 것이 중용의 가르침이다.

해외의 정원 방문시 항상 최고 모습만을 찾으려 하는지는 아닌

가 각자에게 반추하여 보자. 정원은 식물이 싱싱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기쁘게 자라나는 공간이며 각각의 식물이 주는 기쁨이 모여 정원의 특성을 만든다. 긴 세월이 흐르면서 그 공간 안에 정원문화의 의미와 각각의 문화도 흡수하여 말없는 자연이 주인이 되어 융합을 이루는 공간이다. 이처럼 소박한 마을이 세상에 최고의 정원으로 소개되어 유난히도 자연의 공간이 계속 이어진 영국의 전통적 정원마을로 명소를 이루어낸 곳이다.

Cotswolds 코트우즈의 정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Cotswolds의 마을 정원 산책로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으며, 주변 공기를 마시고 정갈한 개인의 정원이나 역사 속의 마을 산책을 하며 즐기는 곳으로 다른 정원의 장소보다는 마음의 감동이 깊게 와닿는 곳으로 남을 것이다. 마을 주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Hidcote Manor 정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변에 위치한 Kiftsgate Court 정원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Kiftsgate 덩굴장미로 유명합니다. Rodmarton Manor 정원과 Barnsley House 정원은 둘 다 전통적인 영국 지방 정원으로 좋은 비교가 되며, Westbury Court 정원은 가장 오래된 전통의 독일식 수중정원으로 남겨져 현존하는 곳이다.

(다음 호에 계속)



BOWOOD HOUSE RHODODENDRONS



Chippenham 부근 5-6월 6주동안 꽃정원과 수목정원을 분리하여 개장을 한다.

South Coast의 Lyme Regis로부터 Wash방향으로 300km 정도를 가면 연결된 Upper Greensand와 Gault의 경계선이 보이며, Rhododendron Walks는 이 소유했던 집터의 일부이다. 전형적인 빅토리아 형식의 정원은 다 자란 떡갈나무와 소나무로부터 보호되게 해주며, 충분한 수분은 진달래와 철쭉에 가장 잘 맞는 성

개장 : 4월부터 10월
www.bowood-house.co.uk/rhododendrons.html

CERNEY HOUSE GARDENS



정원 특징: 낭만적 토양의 특성: 염기성 혹은 중성

Cerney House Gardens는 Cheltenham, Gloucestershire 근처의 Cotswolds에 있는 낭만적이고 비일시적인 장소이며, Lady Angus와 그녀의 가족들이 소유한 집터의 일부이다. 전형적인 빅토리아 형식의 정원은 다 자란 떡갈나무와 소나무로부터 보호되게 해주며, 충분한 수분은 진달래와 철쭉에 가장 잘 맞는 성

개장 : 2월부터 7월
www.cerneygardens.com

THE COURTS GARDENS



정원 특징: 낭만적 Bradford-upon-Avon 지역

The Courts Gardens는 아름답고 다양한 가장 영국스럽고, 많은 신기한 식물과 기발한 색상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법과 꾸밈 그리고 수상정원의 특성을 보여준다. 봄에 피는 구근 등 자연스러운 형태의 수목원과 키친가든 그리고 수목원은 서로 보완을 해주며, 8천평 규모의 정원을 더 넓어 보이게 해주는 것은 너도밤나무 같은 큰 크기의 종들을 함께 수목원에 식재를 하였기 때문이다.

개장 : 3월부터 10월
www.nationaltrust.org.uk/courts-garden



영국의 정원디자인 학교의 소개

정원의 마스터가 되기를 희망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배우며 익히는 미래를 만들며...

정원의 마스터를 꿈꾸는 정원사가 많이 나오도록 해외의 교육 기관을 소개하며 필요한 자료와 전문인으로서의 연수나 교육이 필요한 자들인 구독자들에게 정보를 정성껏 알려드리도록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영국의 경우 단기 교육과 장기교육도 프로그램이 다양하며, 젊은 학생들에게는 커다란 농장에서 일을 하며 학비 조달도 받으며, College에서 주 1회 full time 수업을 받는 course도 열려있는 경우가 다양하니 외국어의 언어 소통에 준비가 된다면 도전해볼 만한 시간이 되리라 봅니다. 고급과정을 위해서는 단기코스도 여름방학기간이 나 정해진 기간을 사전 예약하여 보다 전문적인 코스만 공부하는 선택건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정원사의 위상과 정원의 교육에서는 'RHS'라는 기관에서 시험제도로 만들어 세계 어느 학생도 자격증을 위한 시험을 치루도록 제도화도 마련 하였습니다. 현재 국내의 교육기관에서 교육 기회를 찾기 어려운 분들은 자기 유형에 맞는 배우고, 현장 실습도 하며 정원의 현장도 마음껏 즐기는 영국의 정원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면 매우 진취적인 위치에서 미래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적은 정보 정원사의 꿈을 이루는 목적에 함께 뜻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 gardenin2014@daum.net TEL: 031 712 7009 고정우과장

Hadlow College

Hadlow, Tonbridge Kent TN11 0AL
0500 551 434
enquiries@hadlow.ac.uk www.hadlow.ac.uk

Hadlow는 영국에서 상위의 토목관련 대학으로 3개의 캠퍼스가 Kent지역에 있으며, 꽃꽂이, 원예, 조경 디자인, 농업과 환경공학 등의 과정이 있으며, 훈련만이 성공 할 수 있다는 모토로, RHS 석사 과정인 원예학과 정원관리 그리고 학사 과정인 약초원예학과 정원 디자인 과정이 있다.



Inchbald College of Garden Design

32 Euston Square London SW1V 1PB
020 7630 9011
gardens@inchbald.co.uk www.inchbald.co.uk

Inchbald는 정원디자인그라피와 고급 정원디자인 그리고 종합적인 정원디자인 1년 수료과정을 제공하며, 전문가과정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석사과정의 기회를 준다. 온라인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시간제 수업을 통한 3년 과정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Inchbald 수료 후, Wales대학의 석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KLC School of Design

Unit 503 The Chambers Chelsea Harbour London SW10 0XF
020 7376 3377
info@klc.co.uk www.klc.co.uk

KCL은 가든디자인 실습으로 유명하며, Hampton Court Palace에서 강의를 진행하며 전문적이고 친숙한 환경을 제공한다. 가든 디자인 과정은 실습에 중점을 둔 커리큘럼과 시간제 과정을 병행할 수 있게 해준다.



The London College of Garden Design

74 Sydney Road London SW20 8EF
01483 762955
info@lcgd.org.uk www.lcgd.org.uk

LCGD는 정원디자인 강의의 세계화를 초점을 두며,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과정과 전문적인 수료과정을 제공한다. London 중심에 위치한 Regent's Park College에서 유동적인 시간제 과정과 정규과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Merrist Wood

Guildford College Merrist Wood Campus
Worplesdon Guildford Surrey GU3 3PE
01483 88 40 40
mwinfo@guildford.ac.uk www.guildford.ac.uk

Merrist Wood의 조경관리사수료는 200개가 넘는 과정을 운영하며, 1일 워크샵부터 3년 수료과정 까지 다양한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다. 수목재배, 화훼, 정원디자인, 조경과 원예등의 과목을 제공한다.



Oxford College of Garden Design

Cotuit Hall Pullens Lane Headington Oxford OX3 0DA
01491 628950
info@garden-design-courses.co.uk
www.garden-design-courses.co.uk

1992년에 설립된 Oxford College of Garden Design은 단기 과정인 정원사학과 CAD를 1년 과정을 진행 하며, 온라인 과정도 연계 중 이다. 다른 학교 출신은 인터뷰나 4일동안의 준비반을 거쳐 시작 가능하며, OCGD학생은 선발되어 취업연계가 가능하다.



다음 달에 계속 됩니다.

Pickard School of Garden Design, Reaseheath College, Royal Botanic Gardens Edinburgh, Sheffield University, University College, Falmouth

GARDEN & BOOK

가이아의 정원

텃밭에서 뒷산까지, 퍼머컬처 생태디자인

저자 토비 헤먼웨이 역자 이해성, 이은주 들녘

자연의 한 조각을 우리 집 정원에 옮겨놓을 수 있다면?

『가이아의 정원』은 가정 단위에 퍼머컬처 디자인을 적용해 생태정원을 가꾸는 방법을 안내하는 퍼머컬처 입문서다. 퍼머컬처(PERMACULTURE)란, '영속적인 문화(PERMANENT CULTURE)'와 '영속적인 농업(PERMANENT AGRICULTURE)'의 축약어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하여 지속가능한 인간 거주자를 만들려는 일종의 생태디자인 방법론이다.

이 책은 퍼머컬처 디자인을 구체적인 실제 사례(부지가 300평쯤 되는 전형적인 미국 교외 주택에 퍼머컬처 디자인 적용하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개념부터 실행까지 정원의 여러 요소를 조합해서 텃밭당 생태계를 만드는 법을 안내한다. 복합경작 POLY CULTURE, 식물군집/길드 디자인, 먹거리를 생산하는 숲 정원, 도시 거주자를 위한 전략을 추가로 제시한다. 물론 상대적으로 부지가 좁고 주택과 농지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에도 적용가능하다.

[인터뷰 교보문고 제임]

[저자소개]

저자 토비 헤먼웨이 TOBY HEMENWAY는 포틀랜드 주립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 교수, 퍼시픽 대학교 주재 연구원, 생체모방학회(BIOMIMICRY GUILD) 생물학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생태디자인과 지속가능한 문화를 다루는 정기간행물인 『퍼머컬처 액티비스트 PERMACULTURE ACTIVIST』의 편집자를 맡기도 했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퍼머컬처와 생태디자인에 대한 강연과 컨설팅을 한다. 미국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서 아내와 함께 살면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소와 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PATTERNLITERACY.COM

영국 정원에서 길을 찾다

가꾸고 즐기는 영국의 정원 문화 옛보기

저자 이준규

영국에서 발견한 아름다운 정원의 본질, 그 안의 즐거움!

과연 무엇이 아름다운 정원일까? 10년 동안 삼성에버랜드의 조경 디자이너로 일했던 저자는 이 '아름다운 정원의 본질'을 찾아 영국으로 떠났다. 영국 정원의 역사로부터 출발해서 보통 사람들의 정원 이야기를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정원을 만들어야 할지, 어떻게 정원을 가꾸고 즐겨야 할지, 없었던 그 길을 찾아보았다.

『영국 정원에서 길을 찾다』는 현재 영국 에식스 대학교 위틀 디자인 스쿨(WSD)에서 정원 디자인을 공부하며 가드너로 일하고 있는 저자가, 영국의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정원 문화와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풍경화식 정원을 비롯한 영국 정원의 오랜 역사도 엿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며 정원 일을 즐기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단순한 물품이 아닌 문화를 파는 영국 가든 센터, 잡하는 법 대신 즐기는 법을 가르치는 영국 정원 교육, 정원 개방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내셔널 가든 스킴 등 영국 정원 문화의 저변을 탄탄히 지탱하고 있는 요인들을 통해, 왜 보기에 좋은 정원보다 맘 흘러 가꾸는 정원이 아름다운지, 정원을 눈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지까지 친절히 일러준다.

[인터뷰 교보문고 제임]

[저자소개]

저자 이준규는 정원이 있는 집에서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냈다.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 어린 시절의 추억 역시 정원을 무대로 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때 정원에서 맛보았던 따뜻한 평온함은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어렵게나마 정원 디자이너의 꿈을 키우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이후 성균관대학교에서 조경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장소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공부를 마친 후에는 10여 년 동안 삼성에버랜드에서 조경 디자이너로 일하며, 다양한 성격의 조경 설계를 수행했다. 운 좋게 개인 정원 설계도 맡아 몇 건의 정원 디자인을 진행했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시작된 정원에 대한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결국 2011년 다니던 회사에서 사표를 제출하고, 영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영국 에식스 대학교 위틀 디자인 스쿨(WSD)에서 본격적으로 정원 디자인을 배우며, 가드너로서도 일하기 시작했다. 꿈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마음이 충만해지는 나날이 이어졌다. 새로운 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안한 '치유 공간으로서의 도심 자투리 정원'이란 주제로 정원 디자인 석사 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박사 과정 중이다. 정원을 무형의 문화유산 관점에서 보존하고 관리하는 방안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가꾸고 즐기는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2012년과 2013년에 영국 정원 투어를 기획하여 진행했고, 2014년에는 정원 디자인 여름 캠프를 영국에서 진행했다. 현재 월간 『가드닝』 편집위원을 맡고 있고, RECESS STUDIO GARDEN 대표로서 한국의 '푸르네'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공동 진행하고 있다. 공저로는 『유럽, 정원을 거닐다』(글항아리, 2013), 『INTERFACES IN LANDSCAPE THROUGH TIME, SPACES AND PEOPLE』(BLURB, 2014)가 있다.

10% ~20% OFF

인하

정기구독 안내

[구입처]

오프라인 서점

교보문고 광화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영등포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종로 15 타임스퀘어 열터플렉스 2층
강남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지하1, 2층
목동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지하 1층
잠실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 캐슬프라자 지하1층
인천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38 이마트 지하 1층
부천점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연동로 1 부천역사 7층
안양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11 CGV 1번가 5, 6층
분당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분당퍼스트타워 지하1층
천안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3층
대구점 :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586 교보생명빌딩 지하1층
센텀시티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신세계 센텀시티 5층
부산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8 교보생명빌딩 지하 1층
창원역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4 마이우스 빌딩 지하1층

영풍문고 잠실점, 영광도서(부산), 남포문고(부산), 녹산문고(수원)

온라인 인터넷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알라딘 www.aladin.co.kr

[임금방법]

카드 결제 및 문의사항 : 031-712-7009

무통장입금

예금주 :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농협 355-0030-2359-03

▶ 입금 후 반드시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셔야 배송가능합니다.

[정기구독방식]

1년 16.6% 할인(100,000원)

2년 20% 할인(192,000원)

Gardenin

발행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발행인 김영채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 농학박사
박공영 우리씨드(Uriseed)그룹 대표 이학박사
고문 이순영 前 함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집인 이명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전화 031-712-7009
팩스 031-634-7991
전문위원 김광두 농학박사 / 前상명대학교 겸임교수
김광춘 대림원예종묘(주)대표
김귀순 (주)그린페이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원식 농학 박사 씨드림대표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한국원예디자인협회 향원회장
유봉수 솔개그늘 대표
윤정식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겸임교수
윤평섭 농학박사 / 삼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농학박사 / 前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종석 농학박사 /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건 농학박사

디자인&인쇄 워킹카우42 Workingcow42@naver.com
010 7399 5488



(주)한국원예자재

April 4월 식물재배 필수상품

파종, 이식 준비

6

KELPAK **최고급! 친환경 켈팩**
강력한 생장 촉진!

뿌리 발생을 빠르고, 크고 왕성하게 한다.
광합성 능력 증대로 수확량 증가.
꽃은 분화, 결실의 촉진
태동, 가뭄, 병충에 피해를 막아 회복을 빠르게 함
발근력이 약한 나이들은 수목의 이식에 효과가 크다.

친환경 유럽에서 온
세계적인 천연 배양토

피트모스



친환경 살충 + 수분증산억제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SK 엔스프레이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살충.
정원수동 모드 식물의 이식시 시들음을 방지.
특수 파라핀계 오일로 해충의 기공을 막아 질식에 죽게한다.
진딧물, 응애, 깍지벌레, 가루이 등 흡즙성 해충 방제에 특효!



고급, 천연 친환경 루팅
강력한 발근!

모목이나 성목의 적기 및 부적기 이식
노거수(老巨樹)의 이식작업
채소, 꽃, 특용작물의 묘 이식

친환경 친환경포트 지피7

지피7(지피7)은 피트모스를 압축 성형한 것으로
싸인 발아 및 삼목에 알맞은 원예용 상토입니다.
통기성과 흡수성이 좋고 뿌리가 쉽게 포트벽을
관통할 수 있으며 토인 포트 그대로 정식 가능
있어서 편리합니다.

자매품 지피 원형포트
포트 그대로 정식하고 토양에서 100% 자연분해



막덮기 부직포

바닥에 깔아 마치 이불처럼 식물을
따뜻하게 덮어주어 보온을 해주거나
하우스 위에 덮어 덮어 보온력을 높이는
월동자재, 통기성, 투광성, 투수성이
우수하다.

미림가든센터

경기도 과천시 물사량로 257 (주암동)

Tel. (02)585-5346, 503-7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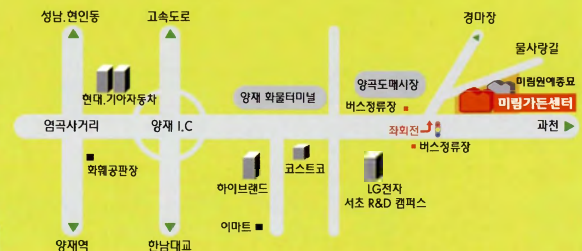
Fax. (02)3473-8989



2015년 카탈로그 발행!
(조이가는 쇼핑몰에서 PDF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림가든센터 **조이가든**
e shop

검색창에 '조이가든' 검색



Nice to **xi** you!

우리씨드

정원용 고급 종자

100

선



월간가든인월에정원전문잡지



우리꽃연구소
URISEED INSTITUTE

467-872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Tel 031.634.7990

Fax 031.634.7991

www.gardenjoa.com(100선 사진 자료)